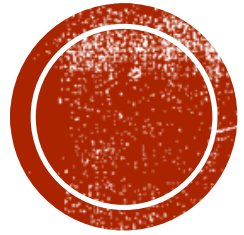




한국 교과서 속의 멕시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바로알리기사업실
연구원, 박혜정



목 차



1. 분석에 사용된 한국 교과서 목록
2. 학년별 사회과 교과서 내 멕시코
3. 요약 및 결론

1. 분석에 사용된 한국 교과서 목록

사회 1 – 중학교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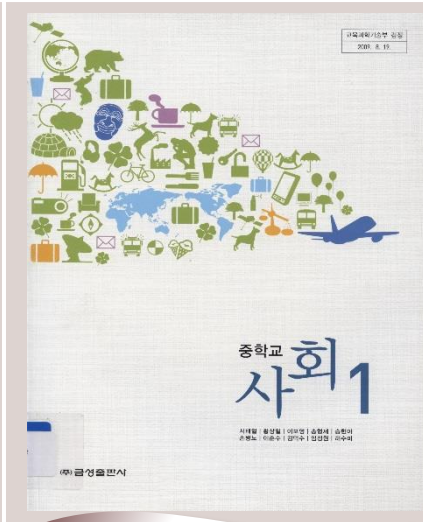
교학사_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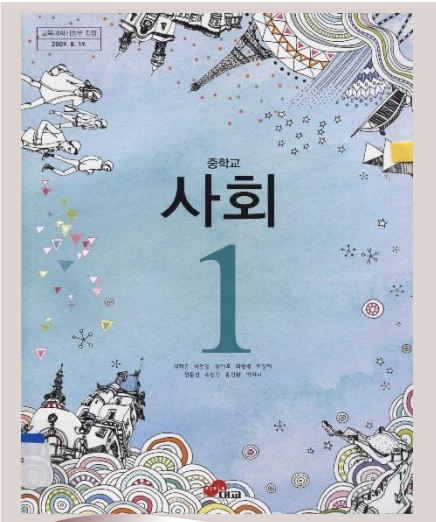
교학사_2011



교학사_2011



금성_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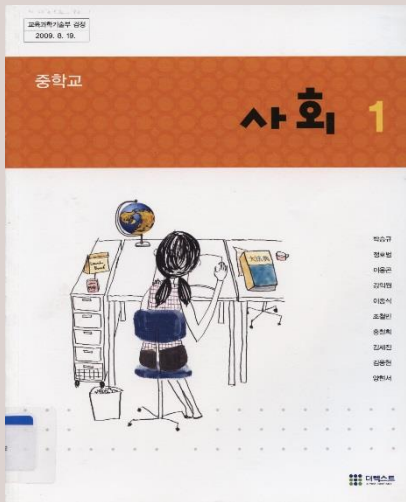


대교_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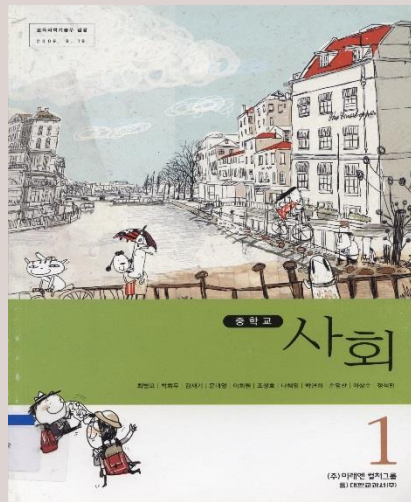


1. 분석에 사용된 한국 교과서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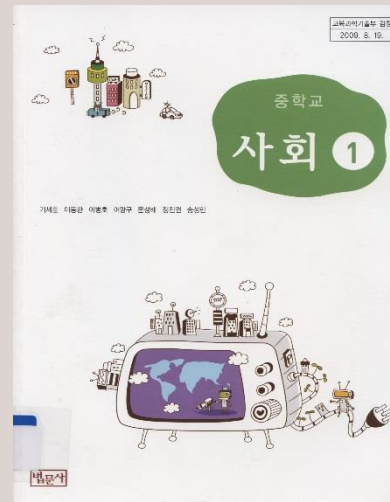
사회 1 – 중학교 1학년



더텍스트_2011



미래엔_2011



법문사_2011



비상교육_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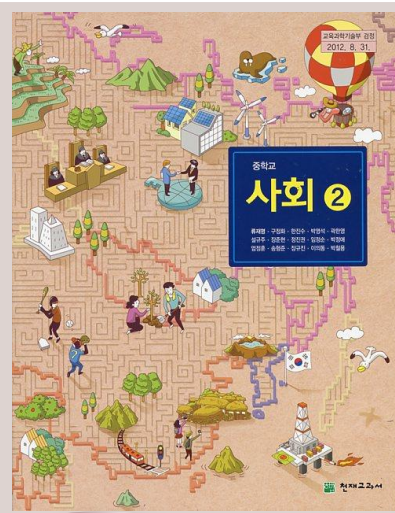


1. 분석에 사용된 한국 교과서 목록

사회 2 – 중학교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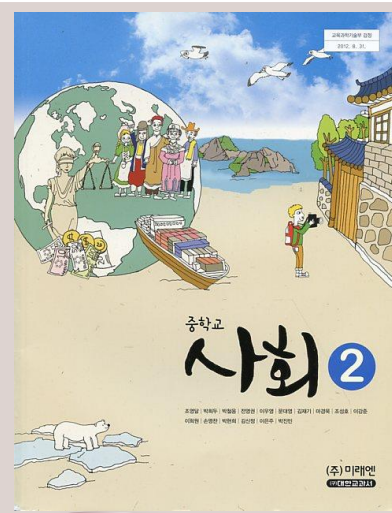
두산동아_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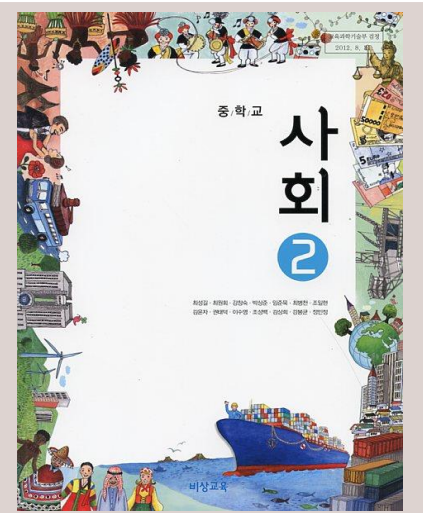
천재_2013



지학사_2013



미래엔_2013



비상교육_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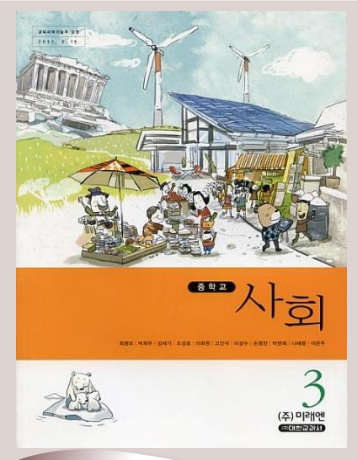


1. 분석에 사용된 한국 교과서 목록

사회 3 - 중학교 3학년



법문사_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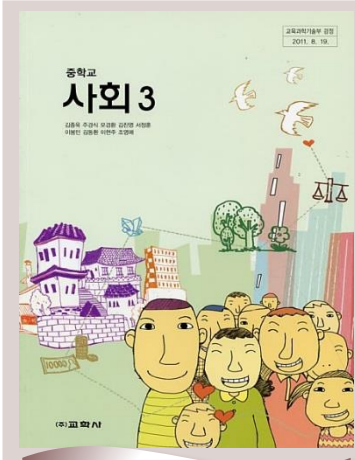
미래엔_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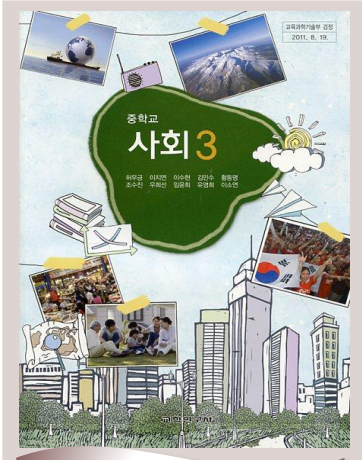
대교_2013



금성_2013



교학사_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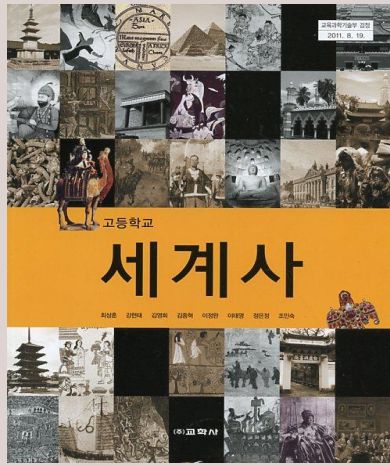


교학사_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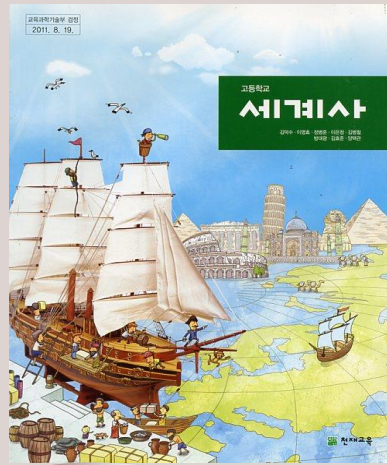


1. 분석에 사용된 한국 교과서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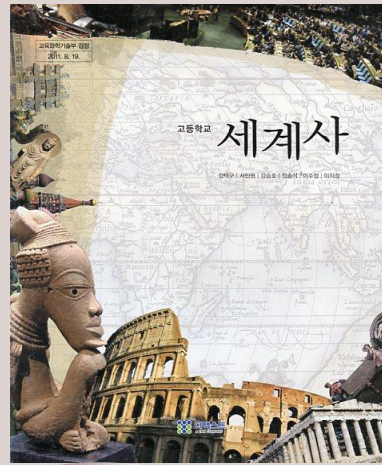
세계사 - 고등학교



교학사_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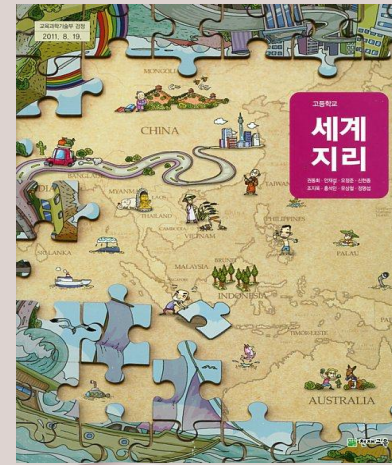


천재_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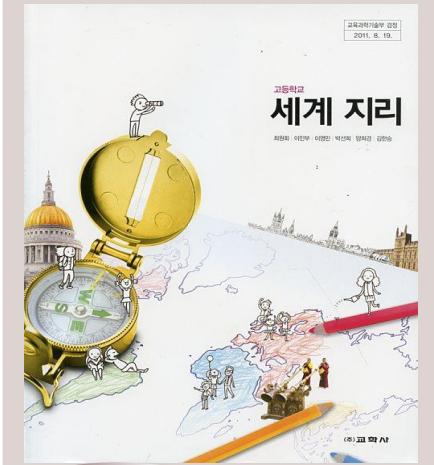


더텍스트_2013

세계지리 - 고등학교



천재_2013



교학사_2013

TOTAL : 25권



2. 학년별 사회과 교과서 내 멕시코

☞ 중학교 1학년 사회

- 주제도

(세계 주요 도시 분포, 지진과 화산, 인구성장률, 강수량, 기후, 문화권, 언어권, 종교 등)

- 문화

(가옥, 마야·아즈텍 문명, 따빠스, 솜브레로, 과달루페 성모상, 멕시코시티 등)



주제도

• 세계 주요 도시 분포

- 1,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주요 도시, 인구밀집
- 세계 10대 도시 인구 변화 그래프

•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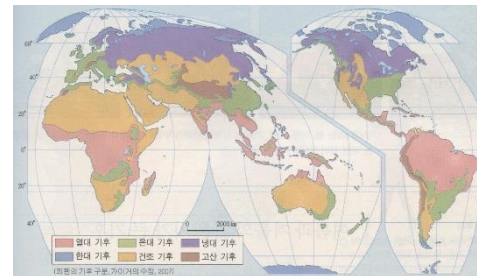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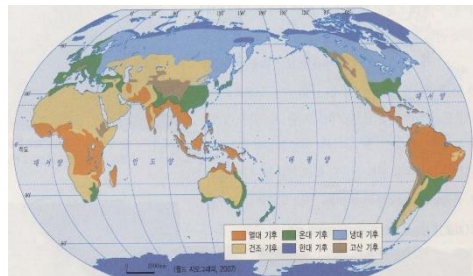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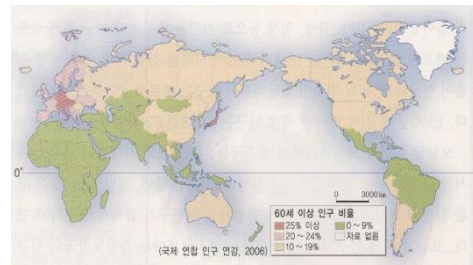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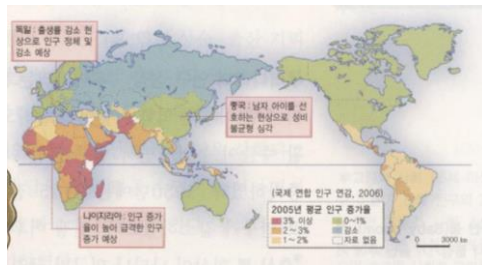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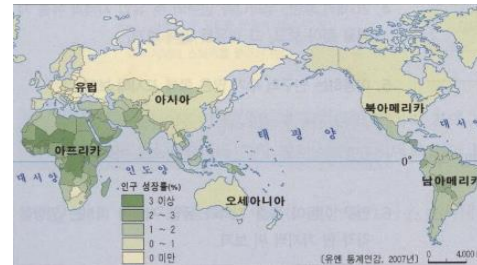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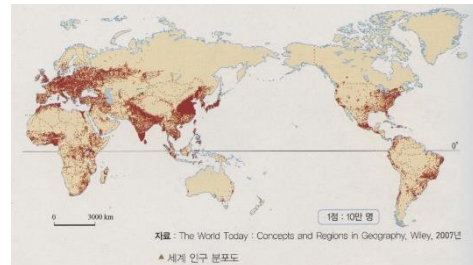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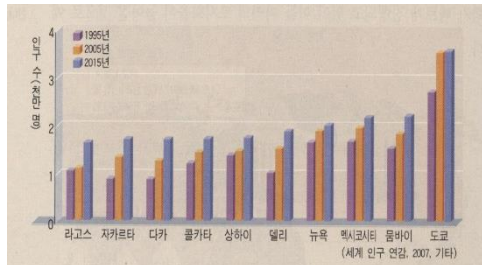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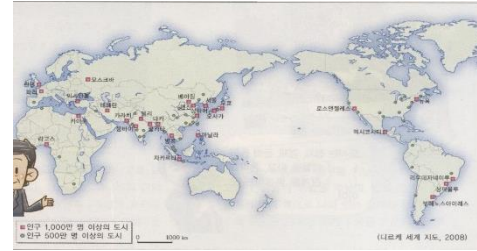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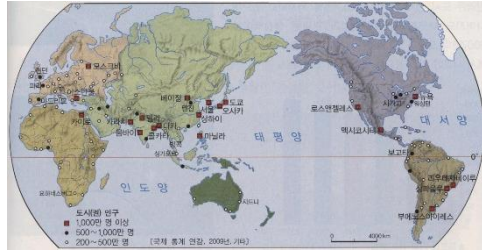
- 인구성장률, 1~2%
- 노인인구 전망, 0~9%

• 식량 사정과 전염병 발생

- 영양부족, 5~20%
- 10만 명당 결핵 환자수, 25명 미만

• 세계 기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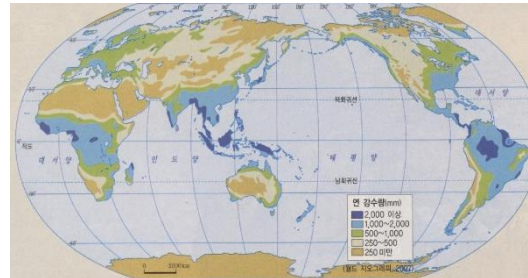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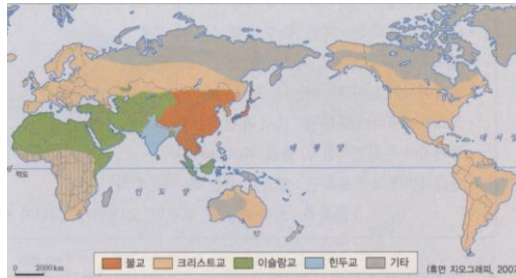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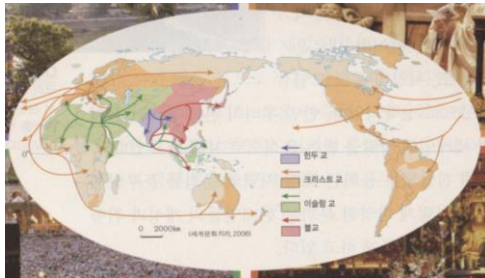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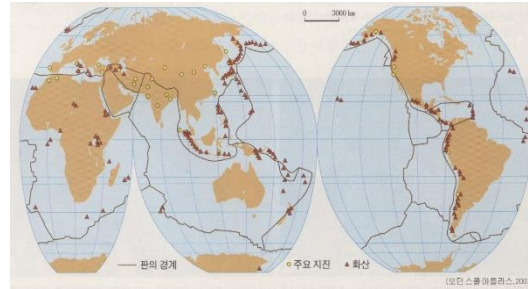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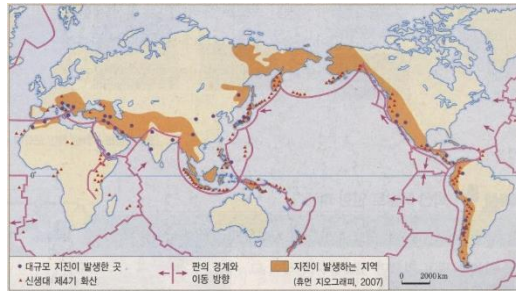
- 열대·온대·건조기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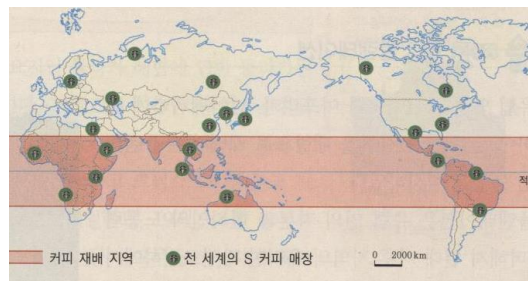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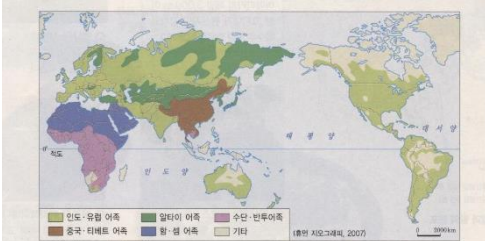
주제도

- **화산과 지진**
 - 멕시코에 존재하는 화산들 표시
- **종교**
 - 크리스트교
- **강수량**
 - 250~2,000mm
- **언어권**
 - 인도·유럽어족, 스페인어 사용권
- **문화권**
 - 라틴아메리카 문화권
- **커피 생산**
 - 커피 재배지역

연도	화산 폭발 지역	사망(명)
1993	필리핀(마운)	75
1991	필리핀(피나투보)	9,000
1991	일본(운젠)	43
1985	콜롬비아(네바도)	25,000 이상
1982	인도네시아(갈룽궁)	68
1982	멕시코(엘친촌)	2,000 이상
1980	미국(세인트헬렌)	57



언어	사용자 수(만 명)	주요 사용 지역
중국어(표준)	85,300	중국, 타이완, 싱가포르
힌두어	42,300	인도 북부
에스파냐어	34,600	에스파냐, 라틴 아메리카, 미국 남서부
영어	33,000	영국, 앵글로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필리핀 등



자료 1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

- 각 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의상은 그 나라의 기후, 문화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한복', 일본의 '기모노', 인도의 '사리' **멕시코의 '판초'** 등은 그 나라의 문화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 **한복**

직선과 곡선이 조화를 이루며, 색채가 곱고 아름답다. 평상복과 예복이 구분되고, 계절에 알맞은 옷감을 사용한다.



일본의 전통 의상 **기모노**

소매가 넓고, 폭이 넓은 허리띠를 두른다. 면직물이나 비단으로 만든다.



인도의 전통 의상 **사리**

한 장의 천으로 몸 전체를 감싸는 옷으로, 더운 지방에서 입기 편하다. 실크로 만든 고급 사리도 있지만, 면직물이나 인조 섬유 등 시원한 느낌의 천을 주로 사용한다.



피지의 전통 의상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에서는 나무껍질로 만든 '타파'라는 섬유로 옷을 만들고 꽃과 물고기 뼈 등으로 장식한다.



멕시코의 전통 의상 **판초**

사각형의 천에 구멍을 뚫고, 그곳에 머리를 내어 입는 옷이다. 중남미 지역의 고원 지대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날씨에 따라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옷이 발달하였다.



문화

· 세계 문화 지도 만들기

각 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의상은 그 나라의 기후, 문화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한복', 일본의 '기모노', 인도의 '사리', '멕시코의 '판초' 등은 그 나라의 문화를 나타내고 있다.

<멕시코의 전통의상 판초>

사각형의 천에 구멍을 뚫고, 그곳에 머리를 내어 입는 옷이다. 중남미 지역의 고원지대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날씨에 따라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옷이 발달하였다.



문화

· 세계 문화 탐험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 사례를 통해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 대해 알아보자.

<⑤ 멕시코>

고대 멕시코의 아스텍 족은 태양에게 인간의 피를 바치지 않으면 태양은 움직임을 멈추고 세계에 종말이 온다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제물이 될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다.

④ 일본



우리나라의 씨름은 처음 진 선수에게 1번의 기회를 더 주는 3판 2승제인 데 반하여, 일본의 씨름인 스모는 1판에 승부를 내는 단판 승부로 만회의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다. 한국인은 중요한 경기일수록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한다는 문화이고, 일본인은 중요한 경기일수록 단 한 번에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모에서 순간의 패배를 그대로 인정하는 일본인의 성격을 엿 볼 수 있다.

⑤ 멕시코

고대 멕시코의 아스텍 족은 태양에게 인간의 피를 바치지 않으면 태양은 움직임을 멈추고 세계에 종말이 온다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제물이 될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다.

⑥ 타이



타이의 파동 족 여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목에 쇠고리를 끼워 넣어 목을 늘린다. 목이 길수록 아름답고 정절이 있는 여자라고 소문이 나서 청혼을 많이 받게 된다고 한다.

부모들이 강제하더라도 절대로 목을 길게 늘이면 안 된다고 관광객들이 말을 해도 자발적으로 목을 늘리는 파동 족 소녀가 있다.



문화

• **남아메리카에 유럽문화가 이식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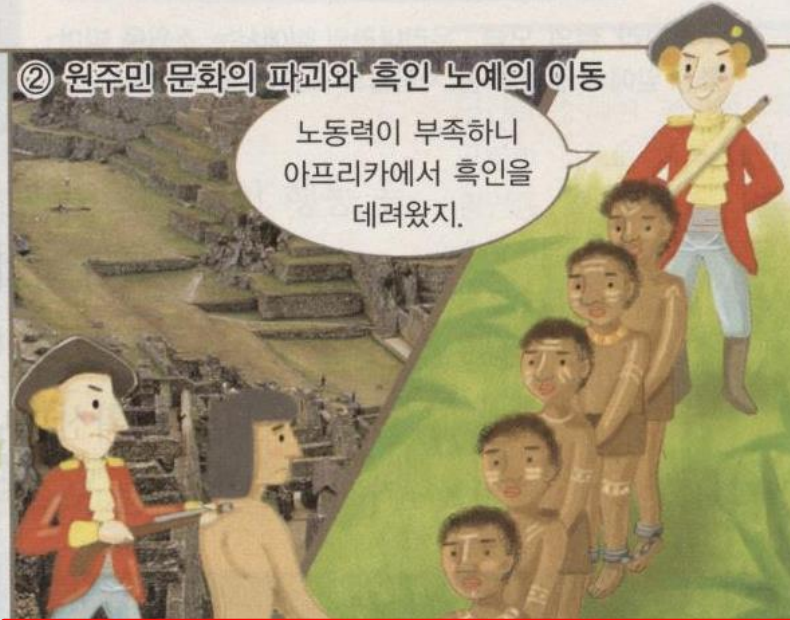
④ **여러 문화가 혼합된 오늘날의 모습 - 멕시코 시티**

남아메리카에 유럽 문화가 이식된 과정

①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침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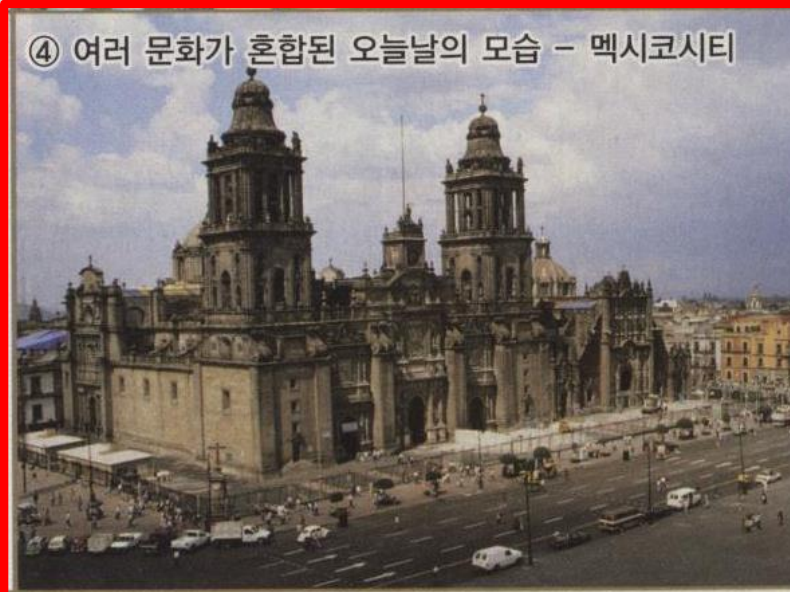
② 원주민 문화의 파괴와 흑인 노예의 이동



③ 다양한 인종과 독특한 문화의 형성



④ 여러 문화가 혼합된 오늘날의 모습 - 멕시코 시티



문화

· 문화의 전파로 인한 변화

<갈색 피부를 가진 성모 마리아>

전체 인구의 대다수가 가톨릭교를 믿고 있는 멕시코의 과달루페 성당에 가면 멕시코 원주민과 같은 갈색 피부를 가진 성모 마리아를 볼 수 있다. 왜 과달루페 성당의 성모 마리아는 흔히 볼 수 있는 하얀 피부의 성모마리아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과달루페 성당의 성모마리아를 통해 멕시코 인들이 에스파냐로부터 전해진 서양문화에 자신들의 토착문화를 결합시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냈음을 알 수 있다.

흥미진진! 생활 속으로!



갈색 피부를 가진 성모 마리아

전체 인구의 대다수가 가톨릭교를 믿고 있는 멕시코의 과달루페 성당에 가면 멕시코 원주민과 같은 갈색 피부를 가진 성모 마리아를 볼 수 있다. 왜 과달루페 성당의 성모 마리아는 흔히 볼 수 있는 하얀 피부의 성모 마리아와는 다른 모습을 하



고 있을까?

우리는 과달루페 성당의 성모 마리아를 통해 멕시코 인들이 에스파냐로부터 전해진 서양 문화에 자신들의 토착 문화를 결합시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냈음을 알 수 있다.



특한 의복 문화가 형성 되었다. 라고 한다.

미국의 카우 보이 복장



스코틀랜드 남성의 전통 의상, 킬트



중국인들이 즐겨 입는 붉은색 옷



곡선의미를 강조한 우리나라의 한복



더운 날씨로 몸의 일부만 가린 아프리카 소년의 의복



올법에 따라 온몸을 천으로 가린 이슬람 여성의 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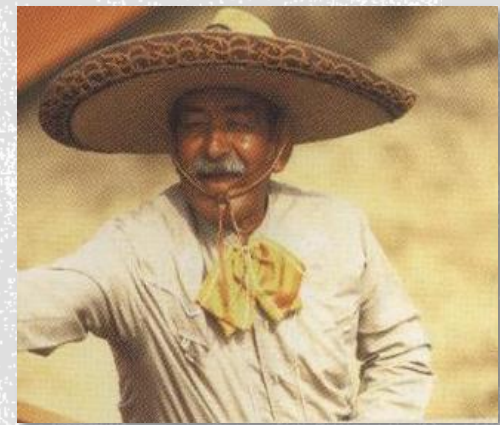
강렬한 태양빛을 차단해 주는 멕시코의 сомбр레로

문화

- 강렬한 태양빛을 차단해 주는 멕시코의 сомбр레로



- 멕시코의 сомбр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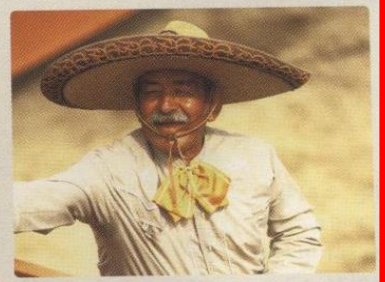
배우고 익히기



이집트의 터번



베트남의 농라



멕시코의 сомбр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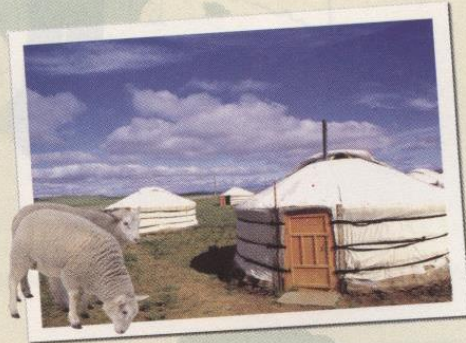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다양한 재료로 만든 세계 여러 지역의 가옥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집을 만든 재료가 그 지역의 자연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집을 짓는 데 사용한 재료를 통해 사람들의 생활과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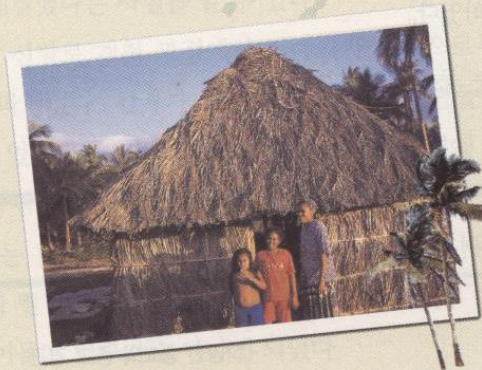
아래 지역마다 자연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집을 짓는 재료도 다양하구나!



콜롬비아의 라과히라 반도는 건조 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큰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선인장의 심으로 집을 짓는다.



몽골의 전통 가옥은 이동이 편리한 조립식으로 유목 생활에 적합하며, 나무와 양털이 주된 재료이다.



누벨칼레도니 섬(프랑스령)에 있는 이 집은 지붕과 벽이 야자 잎으로 되어 있고, 마룻바닥에는 조개껍질과 산호가 깔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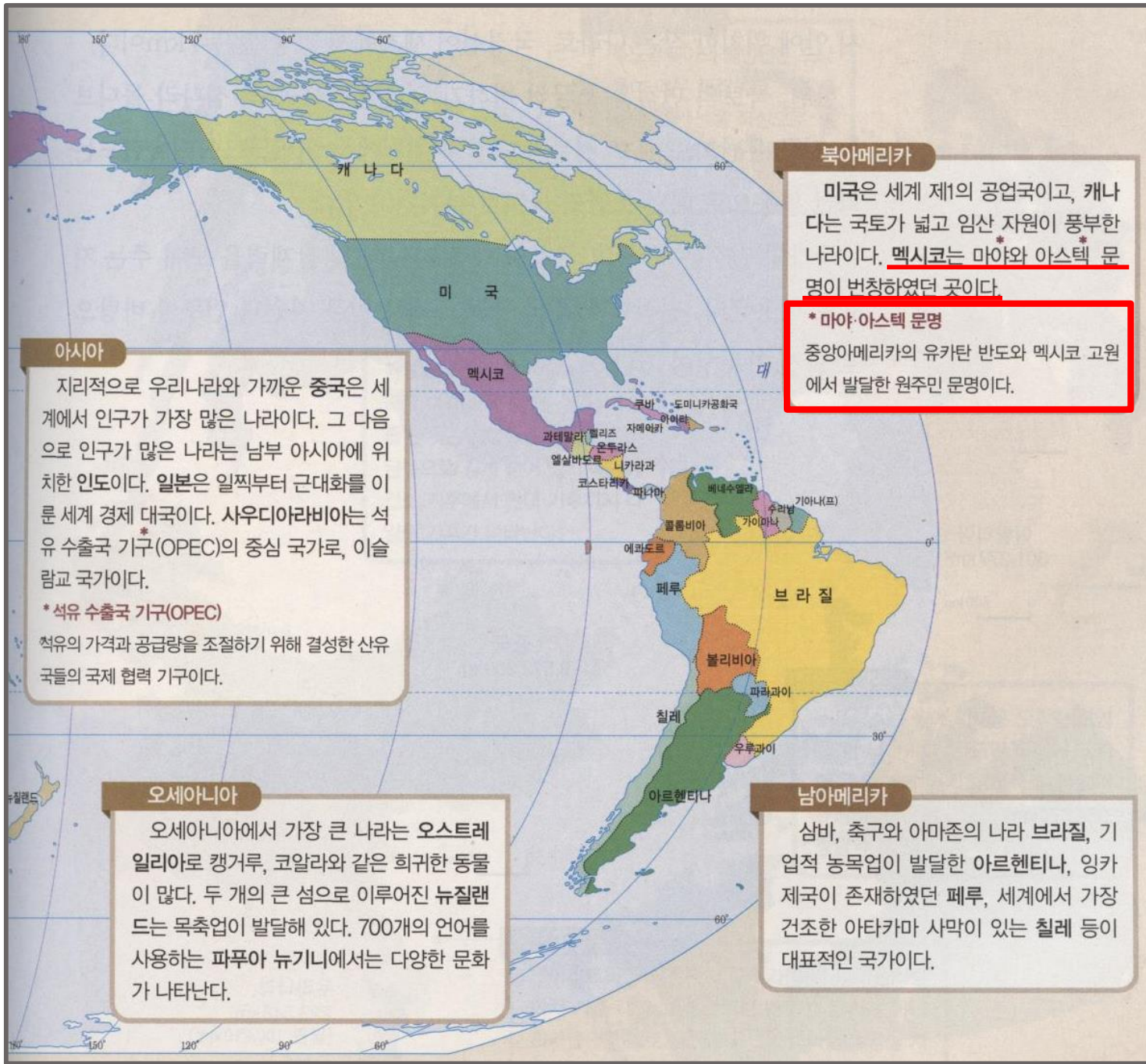
멕시코의 이달고 주에서 볼 수 있는 이 집은 건조한 황무지에서 잘 자라는 용설란의 잎으로 지어졌다.

문화

· 다양한 재료로 만든 세계 여러 지역의 가옥

- 멕시코의 이달고 주에서 볼 수 있는 이 집은 건조한 황무지에서 잘 자라는 용설란의 잎으로 지어졌다.





문화

• 세계 주요 국가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북아메리카>

(전략...) 멕시코는 마야와 아스텍 문명이 번창하였던 곳이다.

*마야·아스텍 문명

중앙아메리카의 유카탄 반도와 멕시코 고원에서 발달한 원주민 문명이다.

북아메리카

미국은 세계 제1의 공업국이고, 캐나다는 국토가 넓고 임산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멕시코는 마야와 아스텍 문명이 번창하였던 곳이다.
 * 마야·아스텍 문명
 중앙아메리카의 유카탄 반도와 멕시코 고원에서 발달한 원주민 문명이다.

아시아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는 남부 아시아에 위치한 인도이다. 일본은 일찍부터 근대화를 이룬 세계 경제 대국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수출국 기구(OPEC)의 중심 국가로, 이슬람교 국가이다.
 * 석유 수출국 기구(OPEC)
 석유의 가격과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결성한 산유국들의 국제 협력 기구이다.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에서 가장 큰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로 캥거루, 코알라와 같은 희귀한 동물이 많다. 두 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진 뉴질랜드는 목축업이 발달해 있다. 700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파푸아 뉴기니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나타난다.

남아메리카

삼바, 축구와 아마존의 나라 브라질, 기업적 농목업이 발달한 아르헨티나, 잉카 제국이 존재하였던 페루,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아타카마 사막이 있는 칠레 등이 대표적인 국가이다.



▶ **난(인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탄도리라고 하는 뜨거운 화덕의 벽에 붙여서 구운 빵



◀ **동남아시아의 차파티**
철판에 구운 통밀빵

▶ **프랑스의 바게트**
지팡이라는 뜻의 딱딱하게 구운 긴 빵



▶ **독일의 호밀빵**
호밀로 만든 검고 묵직한 빵



▶ **쌀과 밀의 분포**

▶ 쌀 (1점당 10만 톤)
▶ 밀 (1점당 5만 톤)

다른 먹을거리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재배되는 카사바(고구마, 마니옥), 남아메리카의 해발 3,000 m 이상 고지대가 원산지인 감자와 옥수수 또한 중요한 작물이다.



▶ **케냐의 카사바** 아프리카에서는 카사바를 찌거나 갈아서 죽을 만들어 먹는다.



▶ **멕시코의 타코스** 옥수수 가루로 만든 동그랗고 얇은 토르티야에 돼지고기, 양배추, 토마토 등을 넣어 먹는다.



▶ **페루의 파파레이에나** 삶아서 으갠 감자 속에 고기, 달걀, 올리브 등을 넣고 다시 감자 모양으로 곱게 다듬어 달걀물을 입히고 기름에 튀겨 먹는다.

문화

· 세계의 다양한 문화

- 멕시코의 타코스

옥수수 가루로 만든 동그랗고 얇은 토르티야에 돼지고기, 양배추, 토마토 등을 넣어 먹는다.



- 지도:쌀과 밀의 분포, 멕시코는 밀이 분포함.



2. 학년별 사회과 교과서 내 멕시코

✌ 중학교 2학년 사회

- 주제도

(신·재생 에너지, 언어권, 종교, 문화권, 커피벨트, 1인당 국내총생산, 한국과의 FTA, 분쟁지역 등)

- 환경 문제 (대기오염)

- 다양한 문화

(멕시코시티의 다양한 도시경관, 과달루페 성모상)



주제도

• 자원

-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중
- 에너지 생산과 소비(백만 TOE)
생산: 234, 소비: 181

• 종교

- 크리스트교

• 언어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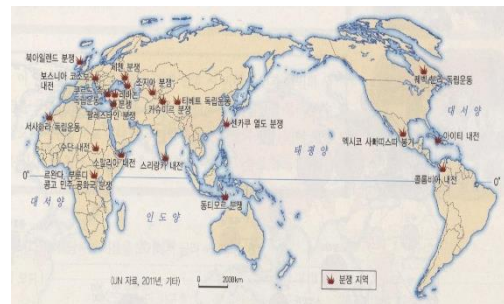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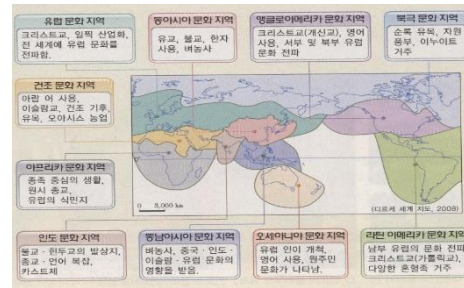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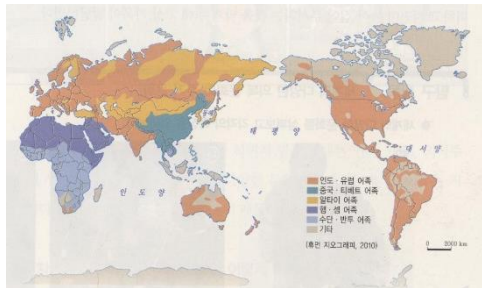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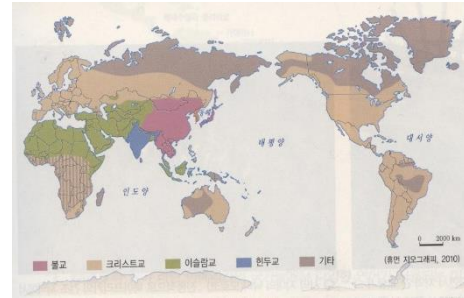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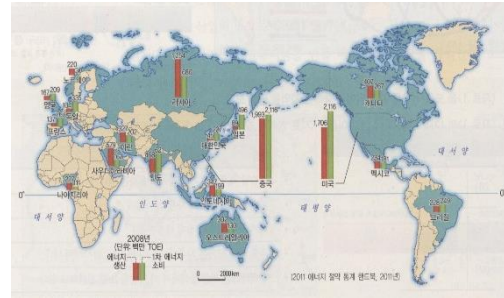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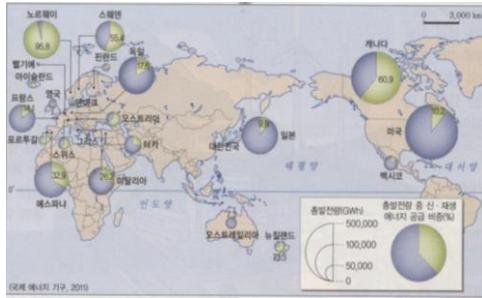
- 인도·유럽어족

• 문화권

- 라틴아메리카 문화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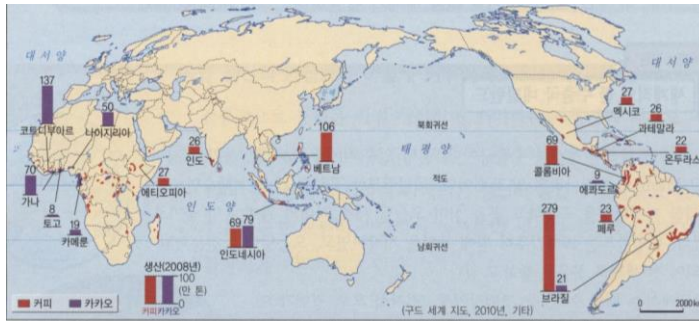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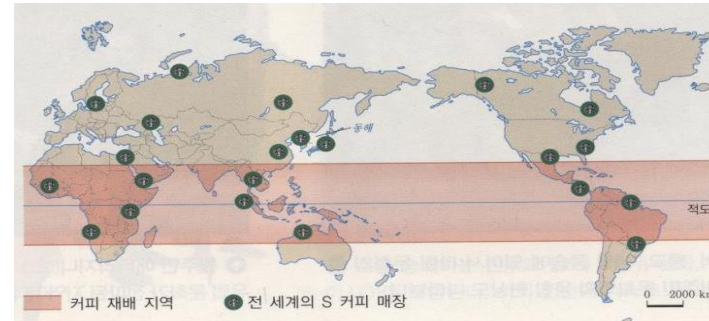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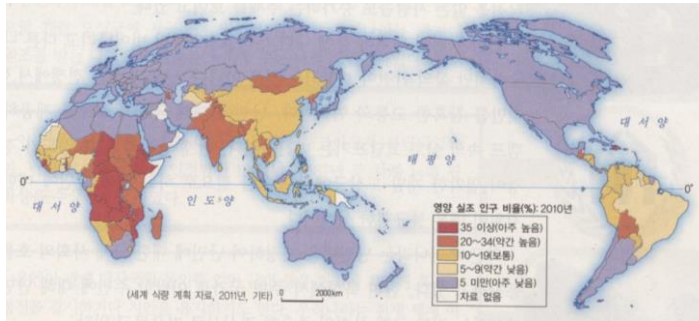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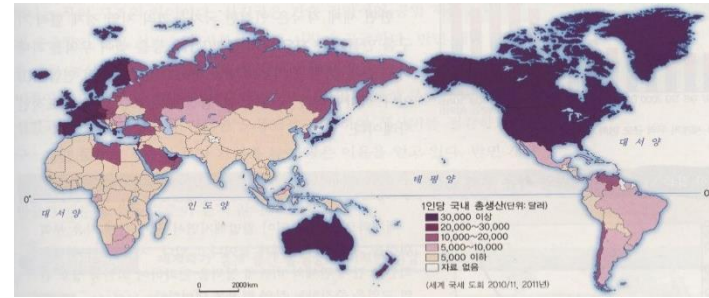
• 분쟁 지역

- 물 자원을 둘러싼 갈등 (리오그란데 강)
- 사빠디스파 봉기(1994년)



주제도

- 세계 주요지역 경제 협력체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세계 각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
 - 5,000~10,000달러
- 세계 기아 문제
 - 영양실조 인구 비율, 5%미만 (아주 낮음)
- 커피 생산
 - 커피 재배지역
 - 커피 생산, 27만 톤
- 한국과의 FTA
 - 협상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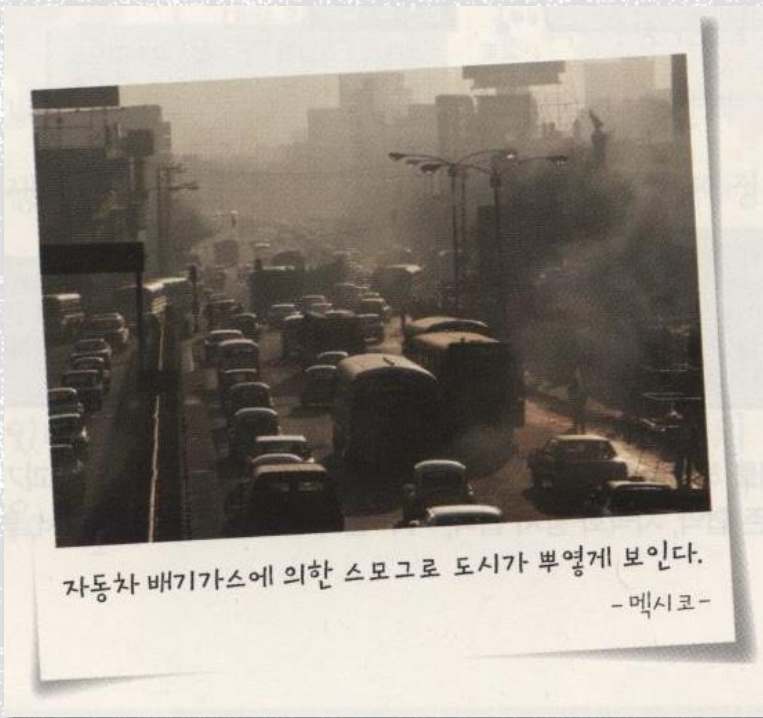


환경문제

· 세계의 다양한 환경 문제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스모그로 도시가 뿌옇게 보인다.

-멕시코-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스모그로 도시가 뿌옇게 보인다.
-멕시코-



석유 정제 시설과 발전소에서 연기가 배출되고 있다.
-스코틀랜드-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스모그로 도시가 뿌옇게 보인다.
-멕시코-

⊕ 대기 오염 자동차에서 내뿜는 매연,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연기 등으로 인해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오염된다. 대기 오염은 공업 발달과 도시화로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오염 물질의 유입으로 녹조류가 두루 퍼져 있다.
-우리나라-



하천으로 폐수가 유입되어 하천이 오염되고 있다.
-루마니아-

⊕ 수질 오염 오염 물질이 강으로 흘러가 강물의 자정 능력을 잃게 하면 강물이 썩는다. 물속에 흘러든 오염 물질 때문에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공장 폐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으로 인해 사람들이 각종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

멕시코시티의 다양한 도시 경관

도시 경관은 도시의 지형, 식생, 건축물, 도로 등이 어우러져 만들어진다. 특히 도시의 역사와 경제적 수준, 제도 등에 따라 다양한 도시 경관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과거 식민 지배를 받은 멕시코시티의 도시 경관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의 도시와 차이가 난다. 그리고 상류층이 거주하는 주거 지역과 빈민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모습은 뚜렷이 구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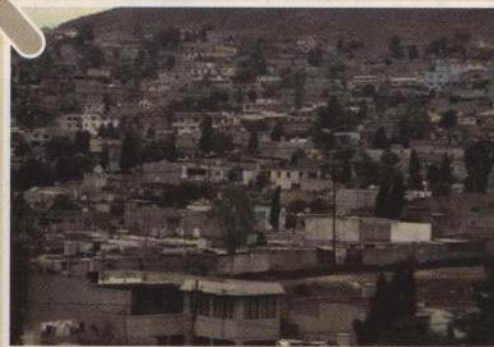
⬆ 소칼로 광장

유럽 인은 새롭게 건설한 식민지 도시에 대규모 광장을 중심으로 넓은 도로를 건설하였다.



⬆ 상류층 주거지

건물이 뻥뻥이 들어선 도심에는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상류층이 거주한다.



⬆ 빈민촌

도시 외곽의 산 중턱에는 빈민이 거주한다. 좁은 골목길과 산 능선을 따라 낡고 허름한 주택이 연이어 분포한다.

소칼로 광장

유럽인은 새롭게 건설한 식민지 도시에 대규모 광장을 중심으로 넓은 도로를 건설하였다.

상류층 주거지

건물이 뻥뻥이 들어선 도심에는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상류층이 거주한다.

빈민촌

도시 외곽의 산 중턱에는 빈민이 거주한다. 좁은 골목길과 산 능선을 따라 낡고 허름한 주택이 연이어 분포한다.

문화

· 지역마다 다양한 문화

<멕시코시티의 다양한 도시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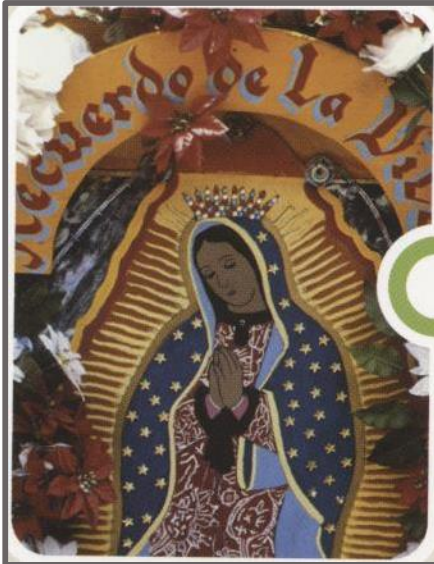
도시경관은 도시의 지형, 식생, 건축물, 도로 등이 어우러져 만들어진다. 특히 도시의 역사와 경제적 수준, 제도 등에 따라 다양한 도시 경관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과거 식민 지배를 받은 멕시코시티의 도시 경관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의 도시와 차이가 난다. 그리고 상류층이 거주하는 주거지역과 빈민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모습은 뚜렷이 구별된다.



문화

<중남미의 성모 마리아 상>

왼쪽 사진은 멕시코인들의 영원한 어머니 과달루페 성모상이다. 메스티소 성모로 검은 머리에 황금빛 피부를 가지고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칠레 독립 100주년 기념으로 프랑스가 선물한 칠레의 성모상으로 유럽의 성모상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후략)



중남미의 성모 마리아 상

왼쪽 사진은 멕시코인들의 영원한 어머니 과달루페 성모상이다. 메스티소 성모로, 검은 머리에 황금빛 피부를 가지고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칠레 독립 100주년 기념으로 프랑스가 선물한 칠레의 성모상으로 유럽의 성모상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 멕시코 갈색 피부의 성모 마리아



☉ 라틴 아메리카

'라틴'이라는 말은 남부 유럽의 언어와 민족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왜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 그것은 라틴 아메리카가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는 동안 가톨릭교와 에스파냐어, 포르투갈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라틴 아메리카 문화는 남부 유럽의 라틴 문화에 아메리카 원주민과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흑인들의 문화가 결합하여 탄생하였다.

☉ 멕시코 메트로폴리탄 성당
아스테카 왕궁이 있던 자리에 세워진 가톨릭 성당이다.



☉ 페루의 아르마스 광장
에스파냐 영향을 받은 분수대를 볼 수 있다.



- 멕시코 갈색 피부의 성모 마리아

- 멕시코 메트로폴리탄 성당,
아스테카 왕궁이 있던 자리에 세워진 가톨릭 성당이다.



2. 학년별 사회과 교과서 내 멕시코

중학교 3학년 사회

- 주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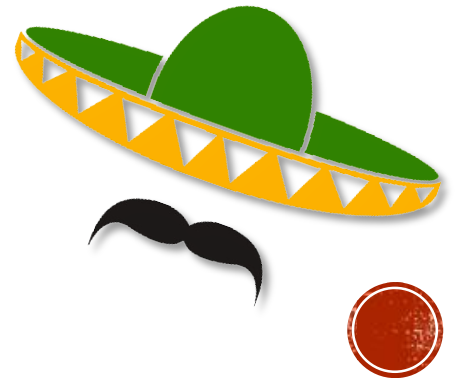
(세계의 주요 공업지역, CO₂ 배출량, 커피벨트, 1인당 국내 총생산, 신·재생에너지 분포, 분쟁지역, 한국과의 FTA 등)

- 자원과 생활

(옥수수가 풍부한 지역, 옥수수 관련 문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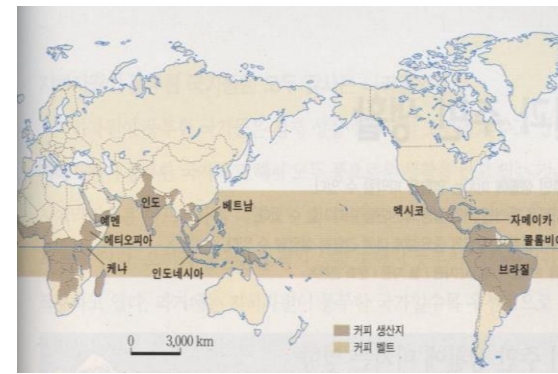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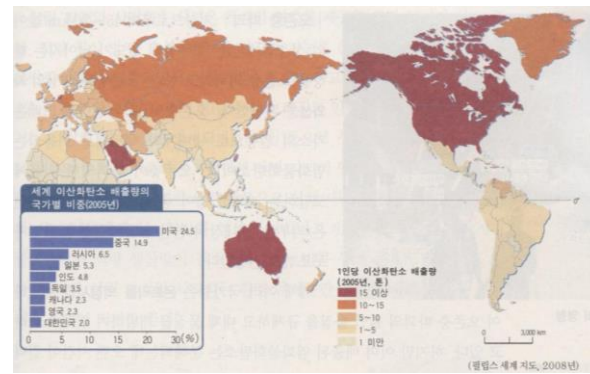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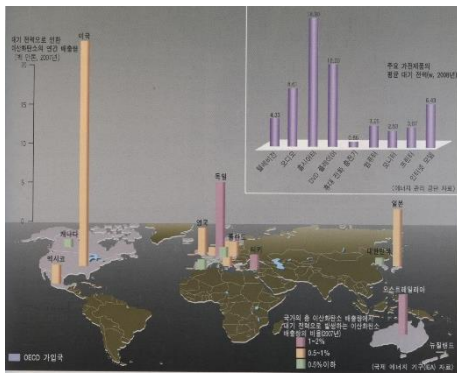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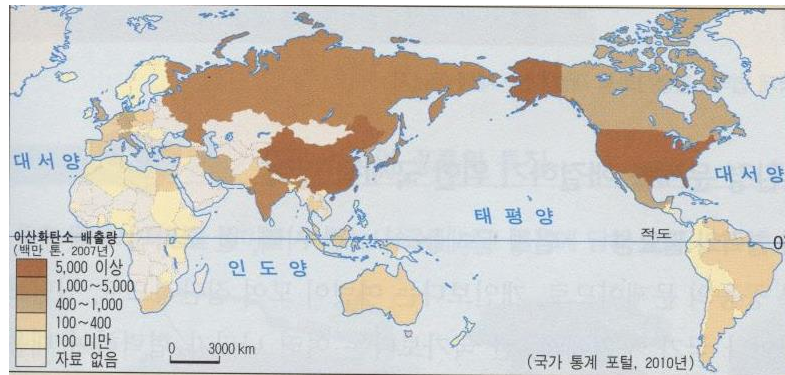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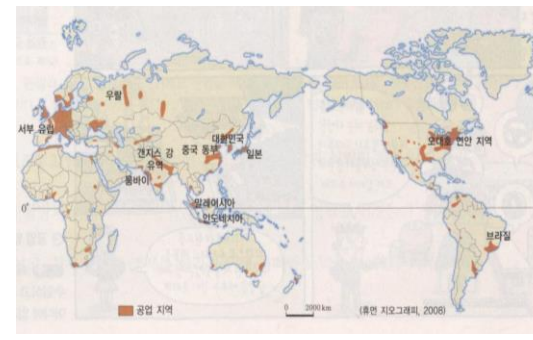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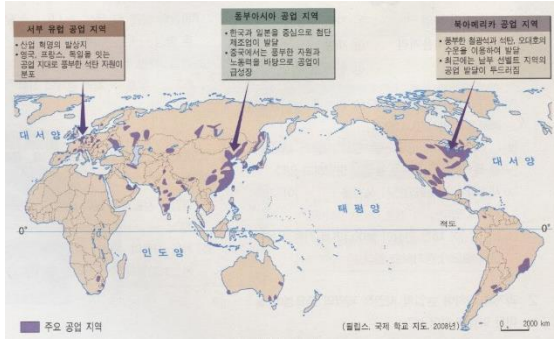
- 광공업의 발달과 지역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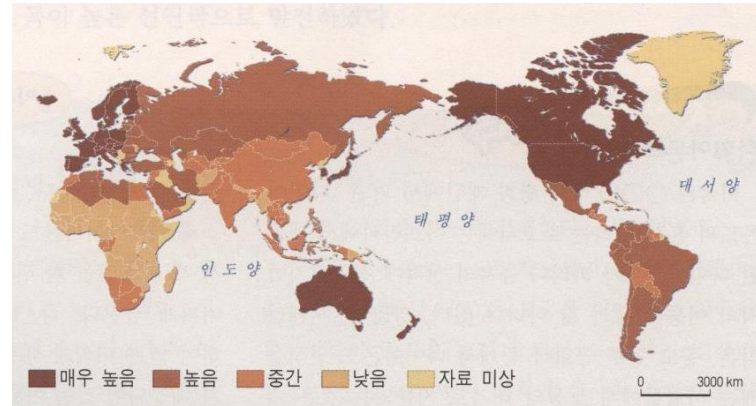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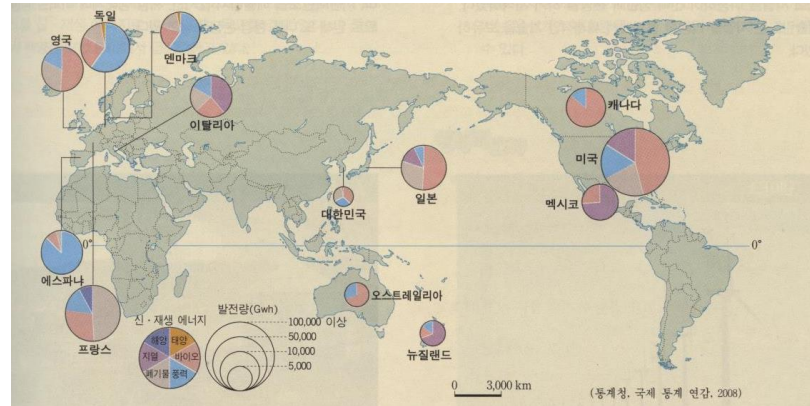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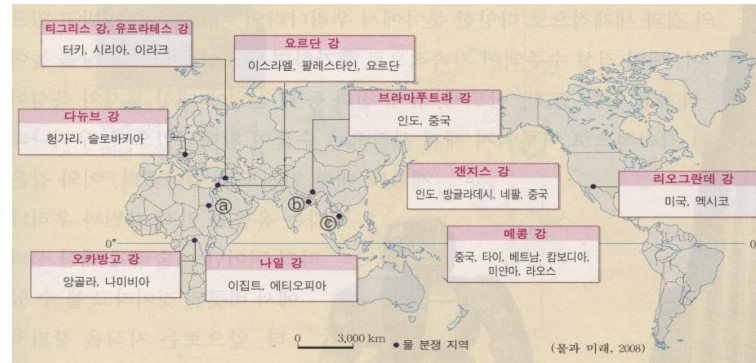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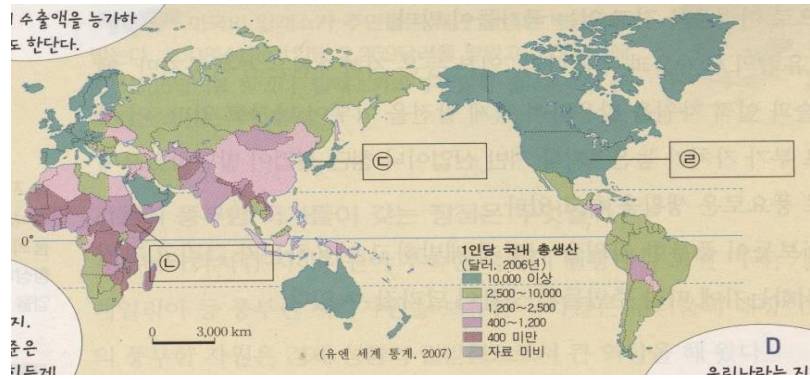
(띠후아나 지역)



주제도

- 세계 주요 공업지역
 - 멕시코의 공업지역 표시
- 환경 문제
 - 이산화탄소 배출량, 400~1,000백만 톤
 -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5톤
 - 대기전력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0.5~1%
- 커피 생산
 - 커피벨트 해당 국가





주제도

- 1인당 국내총생산
- 2,500~10,000달러
- 분쟁 현황
- 리오그란데강
- 신·재생 에너지 분포
- 지열과 바이오 에너지
- 인간개발지수
- '높음'
- 한국과의 FTA
- 협상중



자원과 생활

· 식량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주민 생활

<옥수수가 풍부한 지역의 주민 생활>

4~5개월이면 몇백 배의 양으로 수확할 수 있는 옥수수는 고대 문명들에게는 중요한 식량이었다. 멕시코 고대 문명인들은 옥수수 줄기를 손으로 잡고 있거나 사람의 머리에 옥수수 싹이 자라는 모습을 거대한 바위에 그림으로 그려 남겨 놓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화는 현재까지 이어져 옥수수 가루를 이용하여 전병처럼 만든 '토르티야'를 주식으로 먹는다. 또, 옥수수의 잎사귀로 여러 가지 모양의 공예품을 만들기도 한다.

- 토르티야를 만드는 모습



[자료 3] 옥수수가 풍부한 지역의 주민 생활

4~5개월이면 몇백 배의 양으로 수확할 수 있는 옥수수는 고대 문명들에게는 중요한 식량이었다. 멕시코 고대 문명인들은 옥수수 줄기를 손으로 잡고 있거나 사람의 머리에 옥수수 싹이 자라는 모습을 거대한 바위에 그림으로 그려 남겨 놓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화는 현재까지 이어져 옥수수 가루를 이용하여 전병처럼 만든 '토르티야'를 주식으로 먹는다. 또, 옥수수의 잎사귀로 여러 가지 모양의 공예품을 만들기도 한다.



▲ 토르티야를 만드는 모습



광공업의 발달 과 지역변화

· 공업화가 이루어진 지역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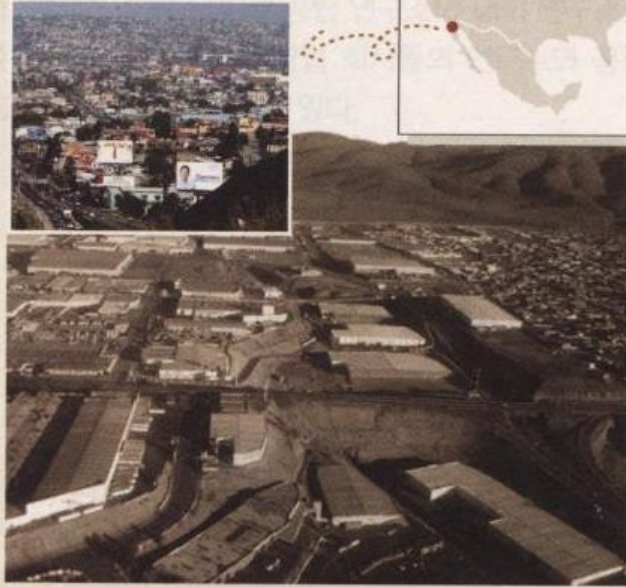
<티후아나 지역의 변화>

미국과 멕시코의 접경 지대에 위치한 티후아나는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주로 면세 부품과 원료를 수입하여 조립한 후, 완제품을 가까운 미국에 수출하는 멕시코의 대표적인 공업 도시이다. 본래 이곳은 캘리포니아 남부 대도시와 가까워 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였으며,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피하려는 밀입국자들의 주요 통로였다. 그러나 1980년 중후반 이후 각종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1990년대에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이 체결되면서 미국과의 무역에서 면세 혜택을 받아 공업 지역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 티후아나 공업지역

[자료 2] 티후아나 지역의 변화

미국과 멕시코의 접경 지대에 위치한 티후아나는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주로 면세 부품과 원료를 수입하여 조립한 후, 완제품을 가까운 미국에 수출하는 멕시코의 대표적인 공업 도시이다. 본래 이곳은 캘리포니아 남부 대도시와 가까워 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였으며,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피하려는 밀입국자들의 주요 통로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후반 이후 각종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1990년대에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이 체결되면서 미국과의 무역에서 면세 혜택을 받아 공업 지역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 티후아나 공업 지역



2. 학년별 사회과 교과서 내 멕시코

👍 고등학교 세계사

- 주제도

(신항로 개척, 은의 유통, 멕시코 고원 원주민 인구 수, 커피 생산, 라틴아메리카 독립, NAFTA 등)

- 문명 (마야, 아즈텍 문명)

- 대서양 교역 (스페인의 침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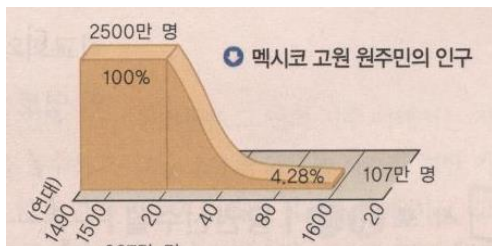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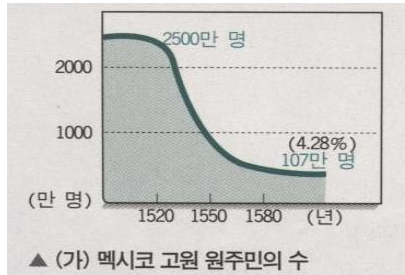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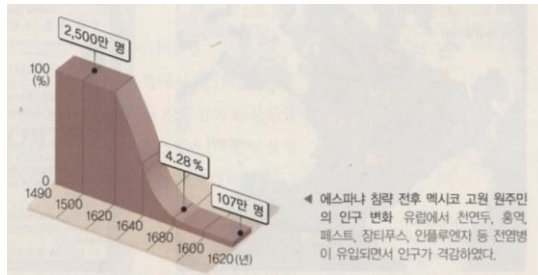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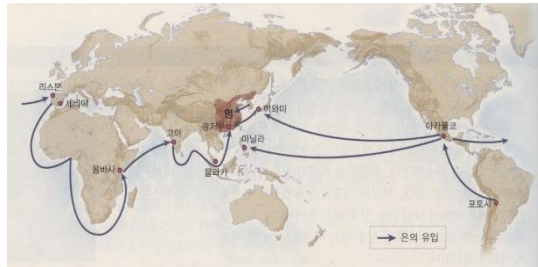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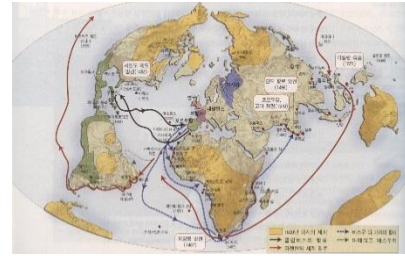
-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민족 운동, 멕시코의 독립, 돌로레스 신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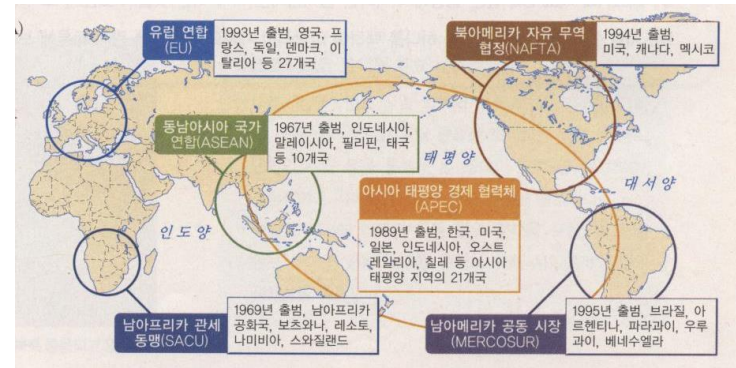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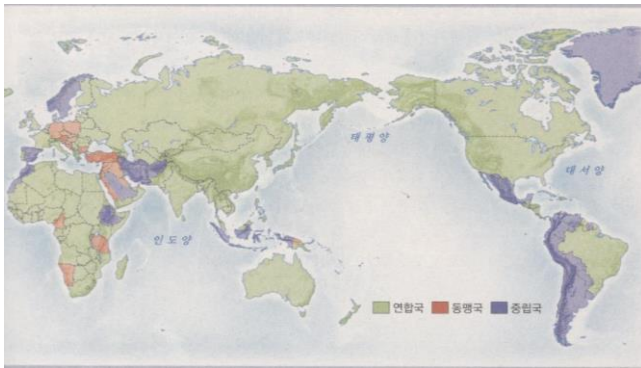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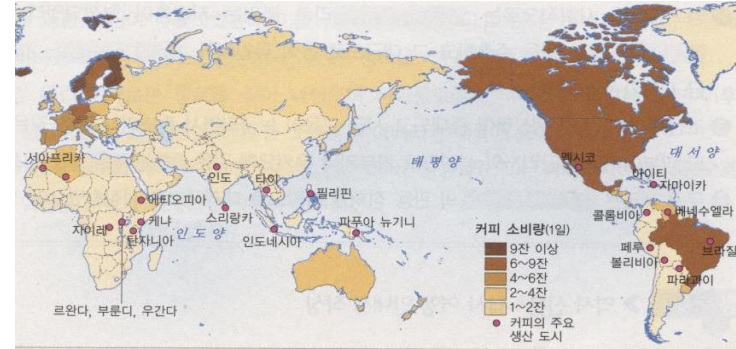
주제도

- **문명 발상지**
- 마야, 아스텍 문명
- **신항로 개척**
- 스페인 식민지
- **은의 유통**
- 아카폴코에서 아시아로
- 사카테카스 은광(1546년 발견)
- **멕시코 고원 원주민 인구**
- 급격히 감소



주제도

-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 멕시코는 1821년에 독립
- **커피 생산**
- 커피 주요 생산지, 커피 소비량: 6~9잔
- **제1차 세계대전 참전국**
- 중립국
- **세계 주요 경제 블록**
- NAFTA



2 아메리카 원주민과 마야 문명

아메리카 원주민의 조상은 아시아의 몽골 계통 이주민이었다. 약 2만 5천 년~1만 년 전 무렵에는 현재 미국의 알래스카와 러시아 사이의 베링 해협이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곳을 통해 아시아에서 몽골 계통의 사람들이 건너와 아메리카 대륙 각지에 퍼져 나갔다.

이들은 아메리카 대륙 곳곳에 정착하여 부족 단위로 생활하였다. 정착한 아메리카 원주민은 환경에 따라 수렵, 어로, 채집을 하다가 점차 농경을 하는 부족들이 생겨났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각지에서 고대 문명을 발전시켰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마야 문명이다. 마야 문명은 3세기에서 9세기 무렵까지 현재의 중앙아메리카 멕시코와 과테말라 지역에서 꽃피었다.

마야 문명은 혈통에 따른 계급 사회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신관·군인·정치 지도자·상인 등은 귀족 계층에 속하여 일반 농민과는 구별되었다. 또한 평민 밑에는 노예 계층도 존재하였다.

마야 문명 지역에서는 주로 옥수수를 재배하였으며, 도시가 발달하여 광장과 도로, 공공건물 등의 건축물을 만들었다. 특히 피라미드 식 신전은 그들의 높은 건축 기술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이 지역 사람들은 신성 문자를 사용하였고, 0의 개념과 20진법의 수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천문 기술이 발달하여 당시 유럽보다 정확한 달력을 만들었다.

그러나 융성하던 마야 문명은 10세기 이후 갑자기 멸망하였다. 마야 문명의 멸망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한 식량의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 아메리카 원주민의 이동 경로



▲ 마야 조각 피칼 왕의 부조이다.



▲ 마야의 도자기



▲ 마야 문명의 유적 치첸이트사의 전사의 신전이다.

문명

· 아메리카 원주민과 마야문명

- 마야 문명에 대한 설명, 멕시코와 과테말라에서 꽃피운 문명

- 지도: 아메리카 원주민의 이동 경로

- 마야 문명의 유적, 치첸이트사의 전사의 신전이다.



문명

· 대서양 교역의 확대

- 아스텍 문명의 태양석, 가운데 얼굴은 태양신을 의미하고 그 둘레에는 아스텍의 태양력이 나타나 있다.



아즈텍의 인신 공양

인신 공양은 전통적인 종교 의식이었지만, 정복한 도시 국가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정복한 도시의 왕과 귀족 등 위험인물들을 합법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정치적 장치이기도 했다.

| 아즈텍 문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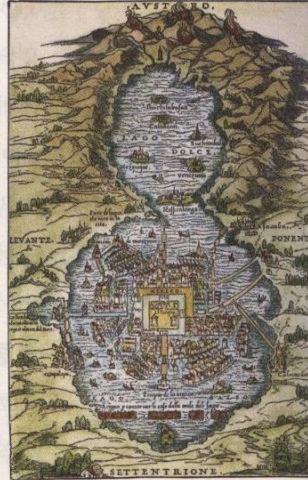
유카탄 반도와 그 남부의 저지대에서 번영했던 마야 문명은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 부족과 기후 변화로 10세기에 몰락하였다. 그 뒤를 이어 멕시코 고원의 계곡 지대에서 일어난 **아즈텍 문명**은 잉카와 더불어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였다.

아즈텍 제국은 1325년경에 세워졌으며, 현재 멕시코시티의 중앙부를 중심으로 삼았다. 그 후 인구 20만 명의 **테노치티틀란**을 건설하고 점차 주변 도시와 연합하여 통치 지역을 넓혀 나갔다. 이들은 대규모 장거리 무역을 통해 왕성한 대외 교류를 전개하였으며, 당시 중미와 북미의 많은 지역을 연결하는 중재자적인 역할을 하였다. 아즈텍 사회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 왕, 막대한 영지를 소유한 귀족, 상인·수공업자·병사·농민으로 구성된 서민, 그리고 노예로 이루어졌다.

아즈텍의 중앙 정부는 부족들의 연방체적 성격을 지녔으며, 각 부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치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토지의 공동 소유와 협동 생산이라는 전통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하였고, 육로나 해로를 통해 각 지역의 다양한 생산물이 넓은 지역에 유통되었다.

아즈텍 인들은 유일신이 아니라 여러 신을 섬겼으며, 신들은 전지전능하지 않고 상당히 인간적이며 불완전하였다. 또한, 신이 하나의 고정된 모습을 갖고 있지 않고 때에 따라 다른 신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특히, 태양신은 사악한 힘들과 싸우는 데 인간의 피를 필요로 했으므로 살아 있는 사람들이 제물로 바쳐졌다. 노예, 범죄자, 그리고 정복 지역의 포로들이 그 대상이었다.

16세기 초에 지배 부족의 수탈과 강압이 심해지면서 여러 지방에서 아즈텍 왕에 반대하는 반란이 일어났는데, 마침 **코르테스**와 에스파냐 군대가 침입하여 원주민 반란 부족들과 동맹을 맺고 아즈텍 문명을 멸망시켰다.



▲ 테노치티틀란
도시의 중심에는 대신전과 궁전이 있고, 넓은 도로로 외곽의 거주지와 연결되었다. 카누를 타고 도로와 교차하는 운하를 통해 직접 시 중심지로 갈 수도 있었다.

문명

· 아메리카 문명과 종교

<아즈텍 문명>

- **아즈텍의 인신 공양**, 인신 공양은 전통적인 종교 의식이었지만, 정복한 도시 국가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정복한 도시의 왕과 귀족 등 위험인물들을 합법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정치적 장치이기도 했다.

- **테노치티틀란**, 도시의 중심에는 대신전과 궁전이 있고, 넓은 도로로 외곽의 거주지와 연결되었다. 카누를 타고 도로와 교차하는 운하를 통해 직접 시 중심지로 갈 수도 있었다.



<아즈텍 문명>

유카탄 반도와 그 남부의 저지대에서 번영했던 마야 문명은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 부족과 기후 변화로 10세기에 몰락하였다. 그 뒤를 이어 멕시코 고원의 계곡 지대에서 일어난 아즈텍 문명은 잉카와 더불어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였다.

아즈텍 제국은 1325년 경에 세워졌으며, 현재 멕시코시티의 중앙부를 도읍으로 삼았다. 그 후 인구 20만 명의 테노치티틀란을 건설하고 점차 주변 도시와 연합하여 통치 지역을 넓혀 나갔다. 이들은 대규모 장거리 무역을 통해 왕성한 대외 교류를 전개하였으며, 당시 중미와 북미의 많은 지역을 연결하는 중재자적인 역할을 하였다. 아즈텍 사회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 왕, 막대한 영지를 소유한 귀족, 상인·수공업자·병사·농민으로 구성된 서민, 그리고 노예로 이루어졌다.

아즈텍의 중앙 정부는 부족들의 연방체적 성격을 지녔으며, 각 부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치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토지의 공동 소유와 협동 생산이라는 전통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하였고, 육로나 해로를 통해 각 지역의 다양한 생산물이 넓은 지역에 유통되었다.

아즈텍인들은 유일신이 아니라 여러 신을 섬겼으며, 신들은 전지전능하지 않고 상당히 인간적이며 불완전하였다. 또한, 신이 하나의 고정된 모습을 갖고 있지 않고 때에 따라 다른 신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특히, 태양신은 사악한 힘들과 싸우는 데 인간의 피를 필요로 했으므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제물로 바쳐졌다. 노예, 범죄자, 그리고 정복 지역의 포로들이 그 대상이었다.

16세기 초에 지배 부족의 수탈과 강압이 심해지면서 여러지방에서 아즈텍 왕에 반대하는 반란이 일어났는데, 마침 코르테스와 에스파냐 군대가 침입하여 원주민 반란 부족들과 동맹을 맺고 아즈텍 문명을 멸망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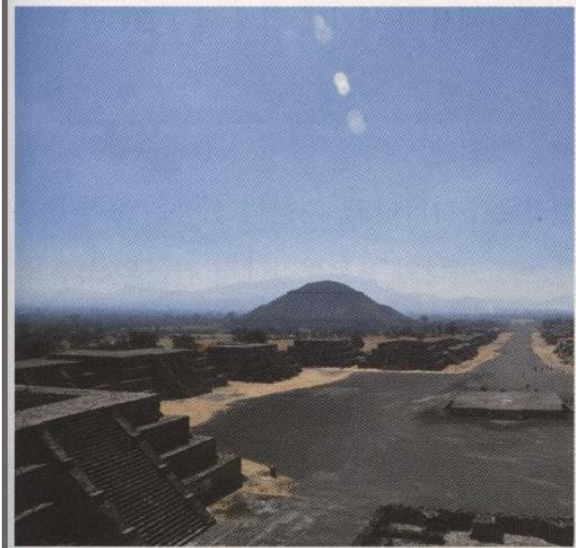
문명



문명

의 수도인 리마를 건설한 에스파냐의 정복자

란의 시기에 에스파냐 정복자 피사로가 도착하였고, 그들은 곧 잉카를 정복하였다.



▲ 멕시코 고원의 테오티우아칸 유적



▲ 아메리카의 문명

▶ 마야 문명 치첸이트사 유적의 성채 엘카스티요



• 아메리카 문명과 종교

- 멕시코 고원의 테오티우아칸 유적
- 지도: 아메리카의 문명
- 마야 문명 치첸이트사 유적의 성채 엘카스티요



에스파냐의 아메리카 침략 |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도착 이후, 에스파냐 인이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하였다. 그중 코르테스는 아스테카 왕국을, 피사로는 잉카 제국을 정복하였다.

에스파냐는 두 문명을 철저히 파괴하고 넓은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또한, 광산을 개발하여 아메리카의 금과 은을 수탈해 갔고, 대농장을 경영하고 사탕수수를 재배하여 얻은 이득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그러나 아메리카 원주민은 에스파냐 인의 무자비한 살육과 가혹한 착취, 그들에 의해 확산된 전염병으로 인구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 결과 노동력이 부족해졌고 이들을 대신할 아프리카 흑인 노예가 아메리카로 유입되면서 사회 구조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또한, 유럽 인은 농경지를 확보하고 우수한 산림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대규모 벌목 사업을 벌여 산림을 파괴하였으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무자비한 수렵을 자행하였다. 그 결과 아메리카의 동물은 멸종 위기에 처해졌다.



▲ 아스테카 문명과 잉카 문명

대서양 교역

· 대서양 교역의 확대

<에스파냐의 아메리카 침략>

- 지도: 아스테카 문명과 잉카 문명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도착 이후, 에스파냐 인이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하였다. 그 중 코르테스는 아스테카 왕국을, 피사로는 잉카 제국을 정복하였다. 에스파냐는 두 문명을 철저히 파괴하고 넓은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또한, 광산을 개발하여 아메리카의 금과 은을 수탈해 갔고, 대농장을 경영하고 사탕수수를 재배하여 얻은 이득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그러나 아메리카 원주민은 에스파냐 인의 무자비한 살육과 가혹한 착취, 그들에 의해 확산된 전염병으로 인구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 결과 노동력이 부족해졌고 이들을 대신할 아프리카 흑인 노예가 아메리카로 유입되면서 사회구조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또한, 유럽인은 농경지를 확보하고 우수한 산림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대규모 벌목 사업을 벌여 산림을 파괴하였으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무자비한 수렵을 자행하였다. 그 결과 아메리카의 동물은 멸종 위기에 처해졌다.

대서양 교역

· 대서양 교역의 확대

<에스파냐의 정복자들>

에스파냐의 정복자들, 아즈텍인의 신화에 따르면, 케찰코아틀 신은 용서 받지 못한 실수를 저지른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스스로 몸을 태워 금성이 되었고, “내가 세기의 마지막에 돌아오리라. 돌아와 다시 영광을 줄 것이다.”라고 말하며 떠났다고 한다. 정복자 코르테스가 군대를 이끌고 아스테카 왕국에 도착했을 때 그는 환대를 받았다. 아즈텍인은 케찰코아틀이라는 신이 어느날 갑자기 돌아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코르테스를 자신들의 신이라고 착각하였다. 하지만 코르테스는 신이 아니라 문명을 파괴하러 온 침략자였다. 아즈텍 인은 끈질기게 저항하였지만 결국 코르테스에게 정복당하고 말았다(1522). (...후략)

인물과 역사 | 에스파냐의 정복자들

아즈텍 인의 신화에 따르면, 케찰코아틀 신은 용서 받지 못한 실수를 저지른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스스로 몸을 태워 금성이 되었고, “내가 세기의 마지막에 돌아오리라. 돌아와 다시 영광을 줄 것이다.”라고 말하며 떠났다고 한다.

정복자 코르테스가 군대를 이끌고 아스테카 왕국에 도착했을 때 그는 환대를 받았다. 아즈텍 인은 케찰코아틀이라는 신이 어느날 갑자기 돌아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코르테스를 자신들의 신이라고 착각하였다. 하지만 코르테스는 신이 아니라 문명을 파괴하러 온 침략자였다. 아즈텍 인은 끈질기게 저항하였지만 결국 코르테스에게 정복당하고 말았다(1522).

이 시기 잉카 제국은 왕권을 둘러싼 형제간의 내분이 일어났다. 지배층의 내부 분열로 제국이 약해진 틈을 타 피사로는 막강한 화력을 가진 무기를 가지고 잉카 제국을 공격하였다. 그는 황제를 처형하고 제국을 정복하였다(1532).



▲ 코르테스



▲ 피사로



대서양 교역

· 아메리카의 민족 운동

<중남부 아메리카 고대 문명이 파괴되다>

콜럼버스의 탐험으로 아메리카 대륙이 유럽세계에 알려진 이후, 멕시코 지역에 있던 아스텍 문명과 남부 아메리카에 있던 잉카 제국은 에스파냐에 의해 정복되었다. 정복자인 백인들은 원주민의 문명을 파괴하고, 광대한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이들은 원주민들을 대농장에 강제로 동원하여 사탕수수과 담배 등 그들에게 필요한 몇몇 작물만을 대량으로 재배하는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였고, 광산을 개발하여 막대한 금과 은을 본국으로 실어 날랐다. 그 결과 에스파냐는 한때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였으며, 옥수수 등 아메리카의 토착작물이 유럽에 전해지기도 하였다.

(...후략)



| 중남부 아메리카의 고대 문명이 파괴되다. |

콜럼버스의 탐험으로 아메리카 대륙이 유럽 세계에 알려진 이후, 멕시코 지역에 있던 아스텍 문명과 남부 아메리카에 있던 잉카 제국은 에스파냐에 의해 정복되었다. 정복자인 백인들은 원주민의 문명을 파괴하고, 광대한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이들은 원주민들을 대농장에 강제로 동원하여 사탕수수와 담배 등 그들에게 필요한 몇몇 작물만을 대량으로 재배하는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였고, 광산을 개발하여 막대한 금과 은을 본국으로 실어 날랐다. 그 결과 에스파냐는 한때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였으며, 옥수수 등 아메리카의 토착 작물이 유럽에 전해지기도 하였다.

에스파냐 인들은 원주민들을 이교도로 몰아 대량 학살하는가 하면, 크리스트교로 개종할 것을 강요하였다. 한편 침략자들과 함께 들어온 천연두, 홍역 등의 질병은 면역력이 없었던 수많은 원주민들의 목숨을 빼어 갔다. 이로 인해 원주민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이에 에스파냐 정부는 아프리카 흑인을 노예로 데려와 노동을 시켰다. 한편 백인들이 원주민을 아내로 삼으면서 혼혈아인 메스티소가 생겨났는데, 그 수가 날로 증가하여 오늘날 중남부 아메리카 인종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서양 교역

· 신항로의 개척

<아메리카의 문명이 유럽에 짓밟히다>

콜럼버스 일행이 아메리카에 도착하기 이전 아메리카에는 이미 발달한 문명이 존재하고 있었다. 멕시코의 고원 지대에는 마야 문명의 뒤를 이어 14세기경에 아스텍아 문명이 형성되었다. 아스텍아 인은 거대한 호수의 가운데에 '신이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오늘날의 멕시코시티)을 건설하였는데, 인구 20만이 넘는 거대한 도시였다. 수도에는 거대한 규모의 신전과 피라미드가 축조되었고, 그곳에서 신관들이 의식을 주관하며 정책을 결정하였다. 아스텍아 인은 금·은 세공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정교한 역법을 제작하였으나, 금속도구의 발달은 느려서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석기를 사용하였다. (...후략)

아메리카의 문명이 유럽에 짓밟히다

콜럼버스 일행이 아메리카에 도착하기 이전 아메리카에는 이미 발달한 문명이 존재하고 있었다. 멕시코의 고원 지대에는 마야 문명의 뒤를 이어 14세기경에 아스텍아 문명이 형성되었다. 아스텍아 인은 거대한 호수의 가운데에 '신이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오늘날의 멕시코시티)을 건설하였는데, 인구 20만이 넘는 거대한 도시였다. 수도에는 거대한 규모의 신전과 피라미드가 축조되었고, 그곳에서 신관들이 의식을 주관하며 정책을 결정하였다. 아스텍아 인은 금·은 세공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정교한 역법을 제작하였으나, 금속도구의 발달은 느려서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석기를 사용하였다.

페루와 칠레에 걸쳐 있는 안데스 고원 지역에는 잉카 문명이 형성되어 15세기와 16세기 사이에 전성기를 이루었다. 잉카 인은 수도 쿠스코와 지방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건설했고, 관료제와 군대 조직을 마련하여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였다. 잉카 인은 글로 된 문자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독특한 매듭을 이용하여 의사를 전달하였다. 관개 시설을 이용하여 골짜기에 계단식 농경지를 조성하였으며, 뛰어난 건축술과 금속 세공 기술도 가지고 있었다.

콜럼버스의 항해 이후 유럽 인들은 황금을 찾아 아메리카로 몰려들었고, 그들에 의해 아메리카의 토착 문명은 파괴되었다. 아스텍아 왕국은 에스파냐의 코르테스에 의해, 잉카 제국은 피사로에 의해 파괴되었다. 이후 유럽이 아메리카를 식민지화하였고, 원주민들은 광산이나 대농장에서 혹사당하였다. 아메리카에서 채굴된 은은 유럽으로 들어가 유럽의 경제 발전과 가격 혁명을 촉발하였다. 그러나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가혹한 중노동에 동원되고 유럽의 새로운 질병에 노출되어 인구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한때 2000만 명이 넘던 아스텍아 왕국의 원주민 수는 100년 만에 10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독립

• 아메리카의 민족 운동

<브라질과 멕시코의 독립>

(전략...) 멕시코의 크리오요들도 에스파냐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며 저항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에스파냐는 멕시코가 자신들의 식민지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력이 집중된 중심지였기 때문에 저항 운동을 강력히 탄압하였다. 이달고 신부가 이끄는 수만 명의 군중은 에스파냐에 대항해 시위를 벌이다 무참히 진압되었다. 이후에도 모렐로스 신부가 이끄는 무장 부대는 독립 투쟁을 계속 이어 나갔고, 결국에는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성취하였다(1821). 이제 라틴 아메리카는 백인들로부터 독립하여 크리오요들이 지배하는 새로운 나라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 브라질과 멕시코의 독립 |

나폴레옹의 침략으로 곤란을 겪던 포르투갈의 왕실과 귀족들은 영국의 호위를 받으며 브라질로 건너갔다. 이 때문에 브라질은 영국의 간접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후 나폴레옹이 몰락하여 포르투갈 왕실은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예전처럼 브라질을 지배하려 하였다. 이는 많은 브라질 사람의 반발을 불렀고, 각지에서 저항 운동이 전

개되었다. 결국, 브라질에 남아 있던 포르투갈 황태자는 브라질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멕시코의 크리오요들도 에스파냐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며 저항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에스파냐는 멕시코가 자신들의 식민지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력이 집중된 중심지였기 때문에 저항 운동을 강력히 탄압하였다. 이달고 신부가 이끄는 수만 명의 군중은 에스파냐에 대항해 시위를 벌이다 무참히 진압되었다. 이후에도 모렐로스 신부가 이끄는 무장 부대는 독립 투쟁을 계속 이어 나갔고, 결국에는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성취하였다(1821). 이제 라틴 아메리카는 백인들로부터 독립하여 크리오요들이 지배하는 새로운 나라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 '돌로레스의 외침' (1810)

멕시코 돌로레스 교구 사제인 미겔 이달고가 만들어 낸 함성을 말한다. 에스파냐 식민 정부에 대항하던 이달고는 1810년 9월 16일 저항 세력을 모아 놓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연설을 하면서 "과달루페의 성모(인디오 신앙의 상징)여, 영원하라. 나쁜 정부와 가추피네스('말에 박차를 가하는 놈들'이라는 에스파냐 어)에게 죽음을!" 하고 외쳤다.



독립

· 아메리카의 민족 운동 <브라질과 멕시코의 독립>

- 돌로레스의 외침(1810),

멕시코 돌로레스 교구 사제인 미겔 이달고가 만들어 낸 함성을 말한다. 에스파냐 식민 정부에 대항하던 이달고는 1810년 9월 16일 저항 세력을 모아놓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연설을 하면서 “과달루페 성모(인디오 신앙의 상징)여, 영원하라. 나쁜 정부와 가추피네스(‘말에 박차를 가하는 놈들’이라는 에스파냐어)에게 죽음을!”하고 외쳤다.



[자료 1] 멕시코의 독립



1810년 원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노력하던 이달고 신부가 600명의 사람들과 봉기하였는데, 며칠 만에 10만여 명의 민중들이 합세하여 멕시코 시티로 향하였다. 이달고 신부와 민중들의 구호는 다음과 같았다.

“과달루페의 성모 만세, 가추핀(에스파냐 본토인을 경멸하며 일컫는 말)에게 죽음을!”

‘돌로레스의 절규’라 불리는 봉기가 일어났던 9월 16일은 멕시코의 독립 기념일이 되었다. 봉기는 백인 후손들과 에스파냐 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었고, 이달고 신부는 처형되었다.

이달고의 뒤를 이어 독립 운동을 전개했던 모렐로스 신부는 멕시코 독립의 이념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멕시코는 에스파냐에서 독립된 나라이며, 자유 국가이고, 주권은 바로 국민에게서 나오고, 법률은 부와 가난을 잘 조정해야 하는 것이며, 무지, 강탈, 사취를 없애야 한다.”

❶ 과달루페의 성모상 | 아메리카 원주민과 같은 피부색과 머리색을 가진 성모상이다. 16세기에 세워진 이 성모상은 멕시코 국민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1810년 원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노력하던 이달고 신부가 600명의 사람들과 봉기하였는데, 며칠 만에 10만여 명의 민중들이 합세하여 멕시코 시티로 향하였다. 이달고 신부와 민중들의 구호는 다음과 같았다.

“과달루페의 성모 만세, 가추핀(에스파냐 본토인을 경멸하며 일컫는 말)에게 죽음을!”

‘돌로레스의 절규’라 불리는 봉기가 일어났던 9월 16일은 멕시코의 독립 기념일이 되었다. 봉기는 백인 후손들과 에스파냐 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었고, 이달고 신부는 처형되었다.

이달고의 뒤를 이어 독립 운동을 전개했던 모렐로스 신부는 멕시코 독립의 이념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멕시코는 에스파냐에서 독립된 나라이며, 자유국가이고, 주권은 바로 국민에게서 나오고, 법률은 부와 가난을 잘 조정해야 하는 것이며, 무지, 강탈, 사취를 없애야 한다.”

독립

·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확산

<멕시코의 독립>

- 과달루페의 성모상, 아메리카 원주민과 같은 피부색과 머리색을 가진 성모상이다. 16세기에 세워진 이 성모상은 멕시코 국민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멕시코

멕시코는 50페소에 멕시코의 성직자이자 독립 운동가인 모렐로스를 싣고 있다. 그는 에스파냐에 맞서 독립 전쟁을 벌였으며 멕시코 남부 지방을 평정하였고, 헌법을 공포하였다. 현재 멕시코의 모렐로스 시와 모렐로스 주는 그의 이름을 딴 것으로 화폐뿐만 아니라 지명에서도 그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다.



● 모렐로스(멕시코 50페소)

독립

· 화폐 속 민족 운동가

<멕시코>

멕시코는 50페소에 멕시코의 성직자이자 독립 운동가인 모렐로스를 싣고 있다. 그는 에스파냐에 맞서 독립 전쟁을 벌였으며 멕시코 남부 지방을 평정하였고, 헌법을 공포하였다. 현재 멕시코의 모렐로스 시와 모렐로스 주는 그의 이름을 딴 것으로 화폐뿐만 아니라 지명에서도 그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다.

- 모렐로스(멕시코 50페소)



2. 학년별 사회과 교과서 내 멕시코

👍 고등학교 세계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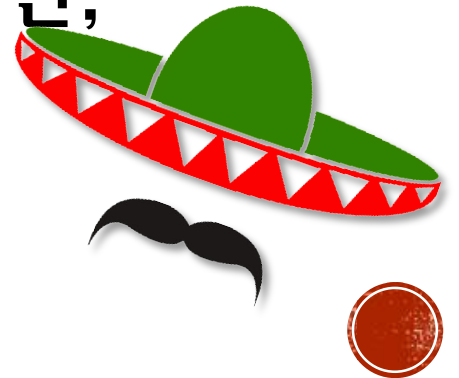
- 주제도

(강수량, 연교차, 화산과 지진, 세계 공업지역, 신·재생 에너지, 출산율, 올림픽 및 월드컵 개최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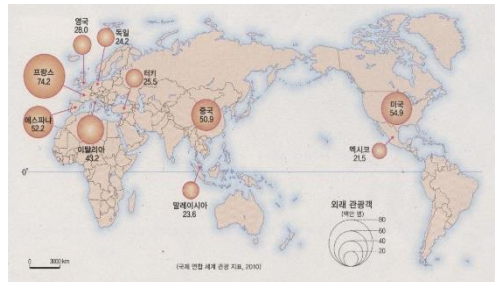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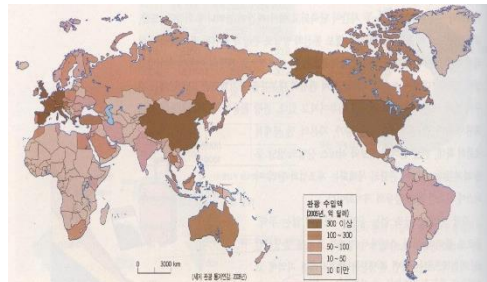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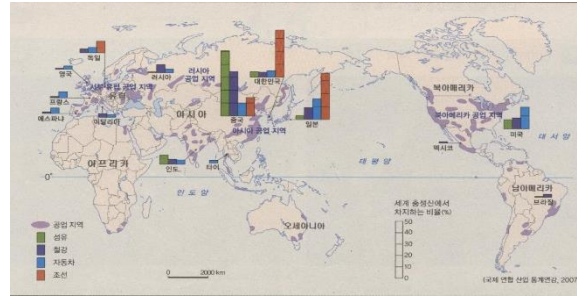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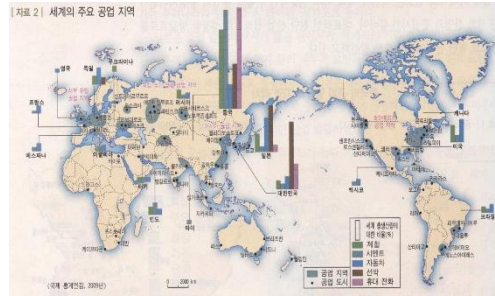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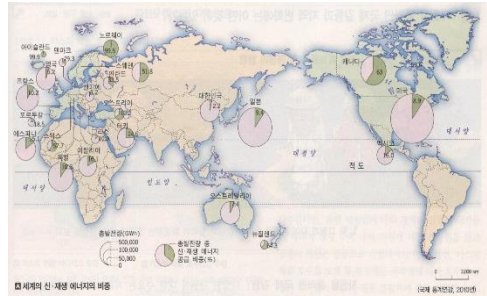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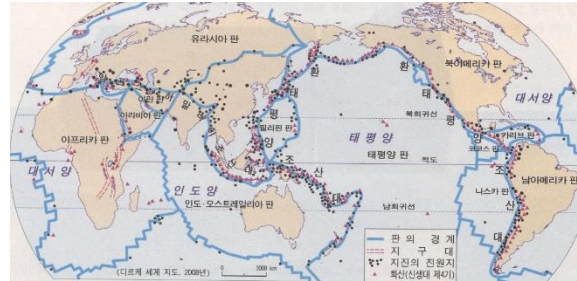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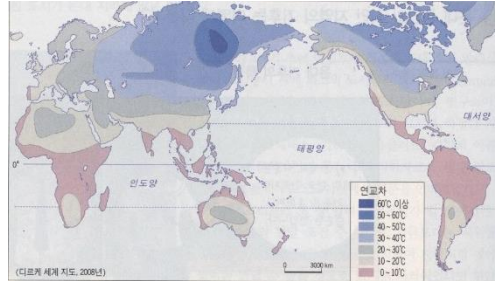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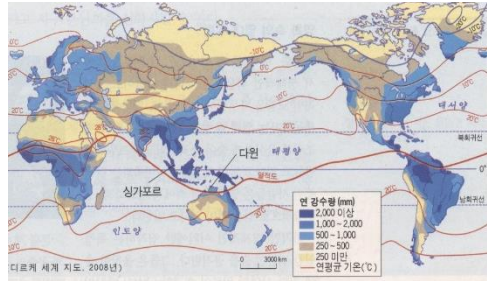
- 문화

(마야, 아즈텍 문명, 세르반티나 축제, 멕시코 원주민, 과달루페 성모상 등)

- 세계 경제 (NAFTA)



주제도



- **강수량**
- 250~2,000mm
- **연교차**
- 0~20도
- **지각 운동**
- 화산 존재, 지진의 진원지
- **신·재생 에너지**
- 공급비중: 16%
- **세계 주요 공업지역**
- 멕시코 주요 공업지역 표시 (시멘트, 자동차 공업, 철강)
- **관광**
- 수입: 100~300억 달러
- 관광객 수: 21.5백만 명
- **한국과의 FTA**
- 협상중



주제도

• 인구

- 출산율: 2~3명
- 노령 인구비율: 0~10%
- 2050년 노령인구비율: 20~25%

• 도시

- 세계 주요 도시
- 도시화율: 60~80%
- 경제 핵심지역 및 국제경제에 영향을 주는 도시

• 수출·입 및 수출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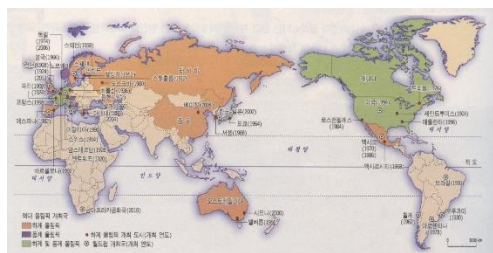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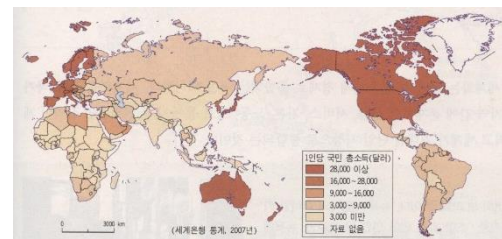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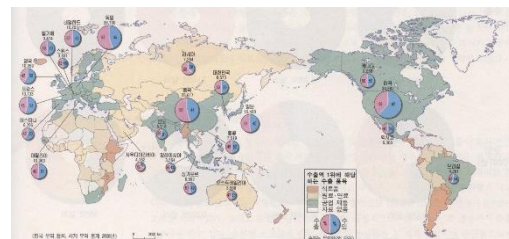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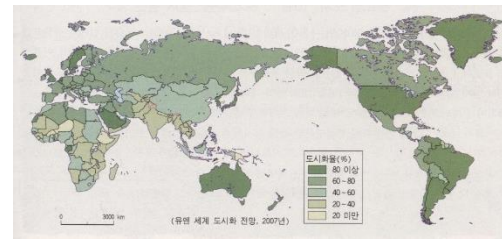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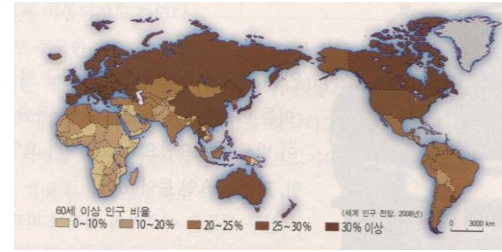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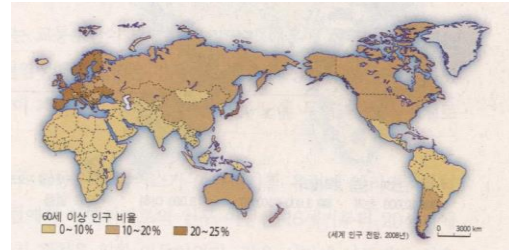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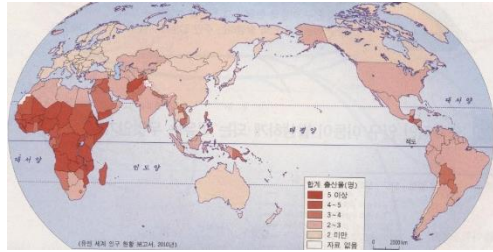
- 수출: 46%, 수입: 54%
- 주요 수출품목: 공업제품

• 1인당 국민총소득

- 3,000~9,000달러

• 올림픽, 월드컵 개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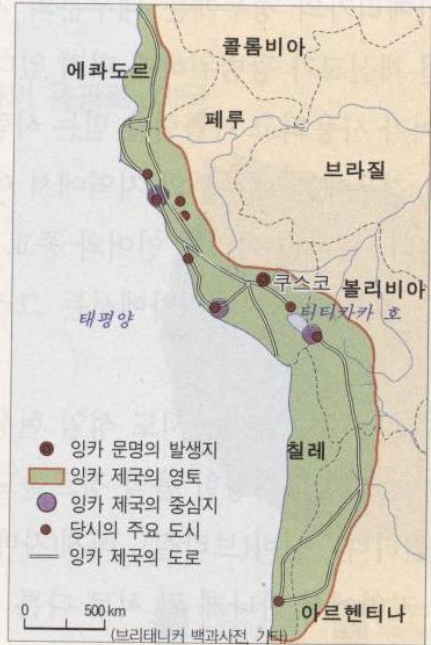
- 월드컵: 1970, 1986년
- 하계올림픽: 196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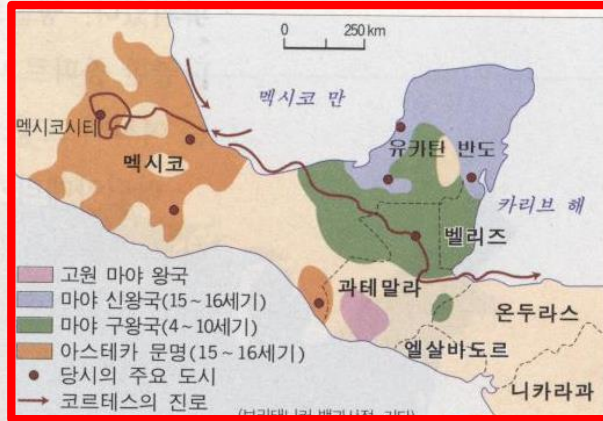
도움글 중남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

멕시코, 과테말라, 칠레의 고산지대에서 번영하였던 인디오 문명은 정착 농경 생활을 하면서 발달된 건축 기술과 고유의 우주관, 종교 등을 가지고 있었다.



- 잉카 문명의 발생지
- 잉카 제국의 영토
- 잉카 제국의 중심지
- 당시의 주요 도시
- 잉카 제국의 도로

0 500km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7판)



- 고원 마야 왕국
- 마야 신왕국(15~16세기)
- 마야 구왕국(4~10세기)
- 아스테카 문명(15~16세기)
- 당시의 주요 도시
- 코르테스의 진로

▲ 마야·아스테카 문명

■ 잉카 문명



▲ 멕시코의 전통 공예품

식민 제국주의의 영향과 다양한 혼합 문화 | 아메리카의 다양한 문화는 식민 제국주의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 앵글로아메리카는 주로 영국의 식민지였지만, 퀘벡 지역에서는 프랑스의 문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재의 앵글로아메리카는 인종의 전시장이라 불릴 만큼 세계 각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다채로운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식민 통치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지만, 앵

문화

· 아메리카의 다양한 혼합문화 <중남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

멕시코, 과테말라 칠레의 고산지대에서 번영하였던 인디오 문명은 정착 농경 생활을 하면서 발달된 건축 기술과 고유의 우주관, 종교 등을 가지고 있었다.

- 마야·아스테카 문명
- 멕시코의 전통 공예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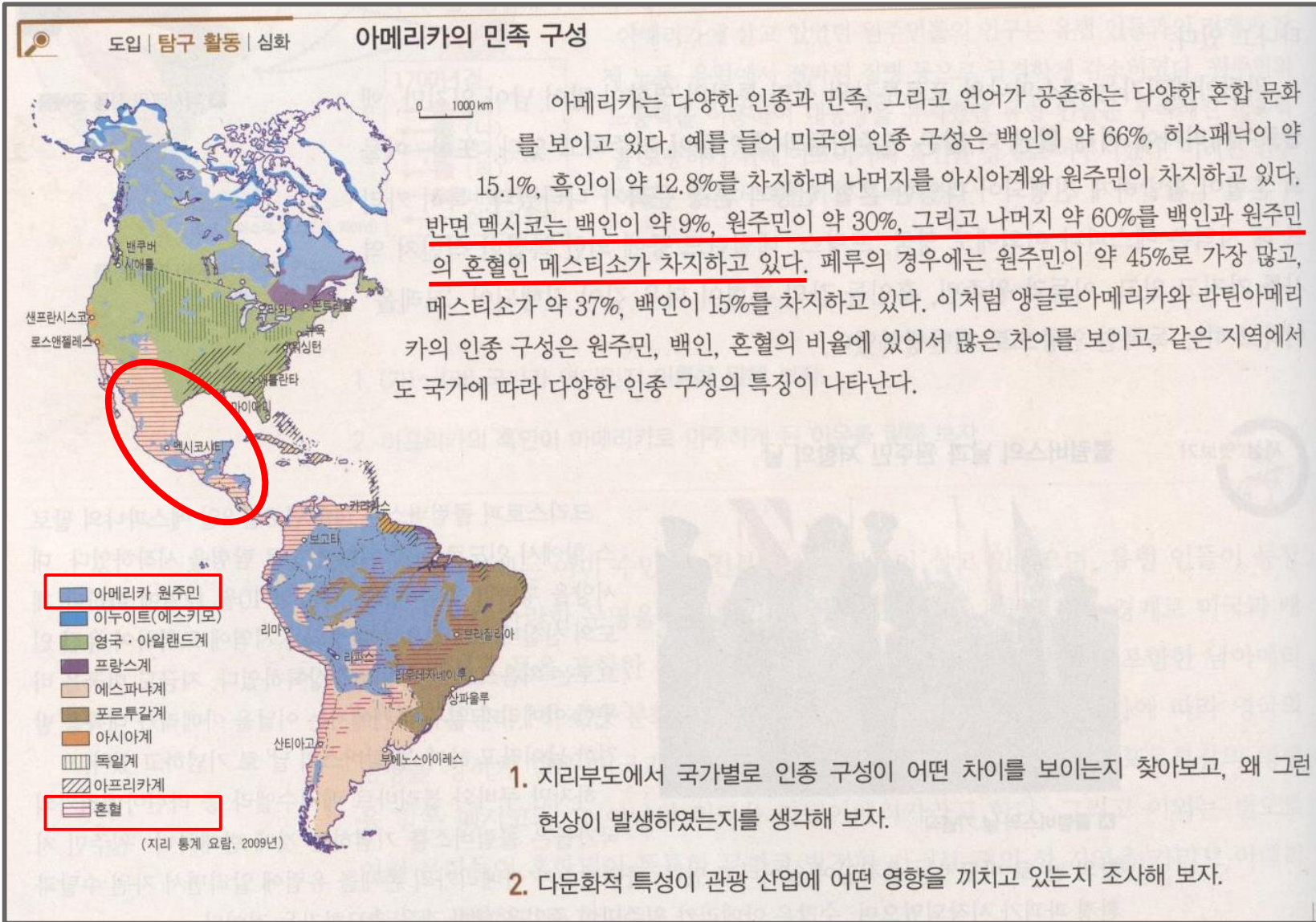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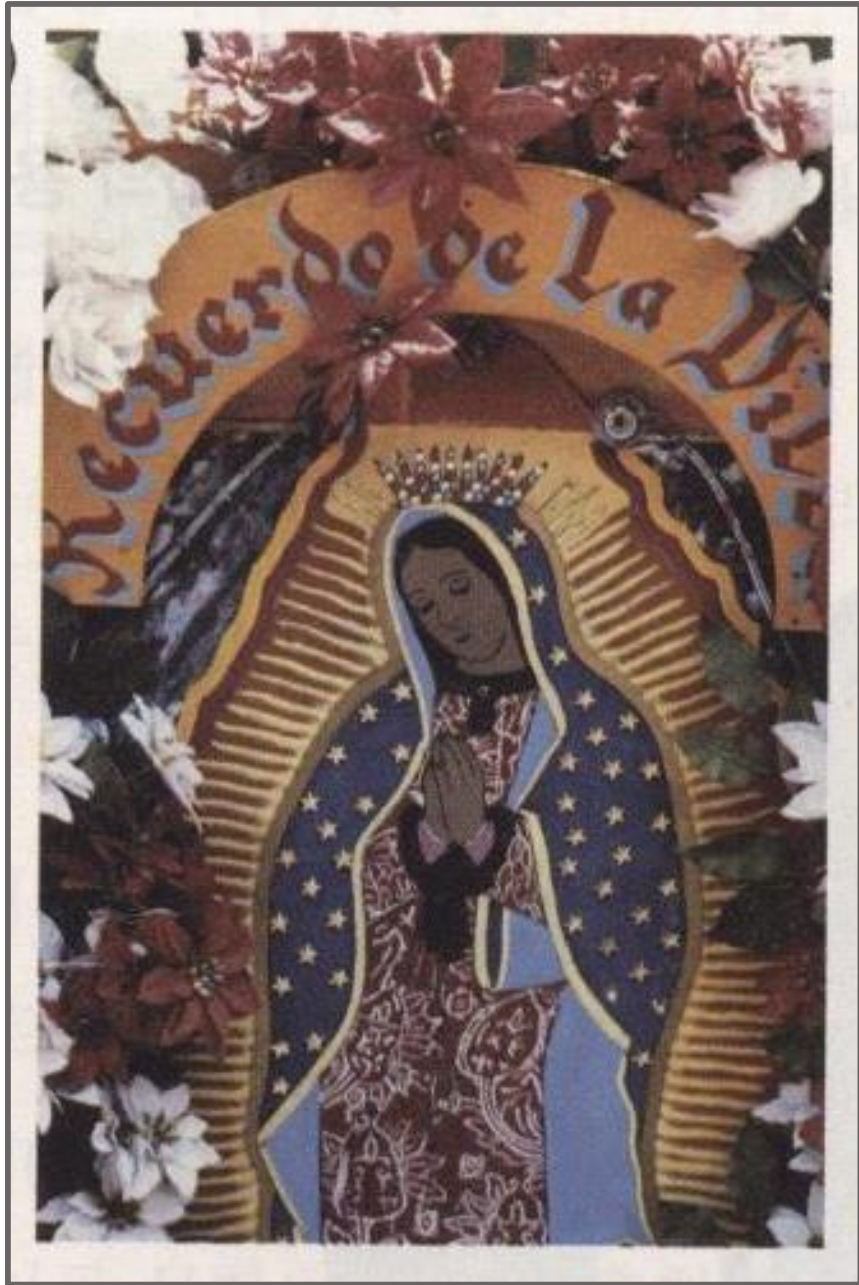
문화

• **아메리카의 다양한 혼합문화**

<아메리카의 민족 구성>

(전략...) 멕시코는 백인이 약 9%, 원주민이 약 30%, 그리고 나머지 약 60%를 백인과 원주민의 혼혈인 메스티소가 차지하고 있다. (...후략)





문화

· **아메리카의 다양한 혼합문화**

<가톨릭 성모상의 변화>

- 과달루페의 성모



문화

· 아메리카의 다양한 혼합문화

<멕시코 주민들의 현실>



▲ 멕시코 원주민들

멕시코에는 과거 마야 문명과 아스테카 문명의 꽃을 피웠던 원주민 종족들의 후예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마야 문명과 아스테카 문명은 16세기 초에 에스파냐인의 침략으로 파괴되었다. 에스파냐의 식민지 시대가 계속된 약 300년 동안 에스파냐어와 천주교가 보급되고, 인디오와 에스파냐인 사이에 혼혈이 진행되었다.

멕시코의 인종 구성은 백인과 원주민의 혼혈인 메스티소가 약 60%, 원주민이 30%, 백인이 9%이다. 그러나 멕시코에서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누리는 중·북부 지역에는 대부분 메스티소와 백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원주민들은 경제

적 혜택에서 소외된 남부 지역에 주로 많이 살고 있다.

멕시코에서 원주민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남부의 오악사카 주와 치아파스 주이다. 특히 치아파스 주는 멕시코의 남쪽에 위치한 경제력이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이다. 치아파스 주의 산크리스토틀 데 라스 까사스에는 많은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 혜택에서 소외된 채 옥수수 농사 등을 지으며 자급자족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일부 원주민들은 원주민들의 권리를 되찾자는 해방 운동인 사파티스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멕시코 주민들의 현실>

멕시코에는 과거 마야 문명과 아스테카 문명의 꽃을 피웠던 원주민 종족들의 후예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마야문명과 아스테카 문명은 16세기 초에 에스파냐 인의 침략으로 파괴되었다. 에스파냐의 식민지 시대가 계속된 약 300년 동안 에스파냐어와 천주교가 보급되고, 인디오와 에스파냐인 사이에 혼혈이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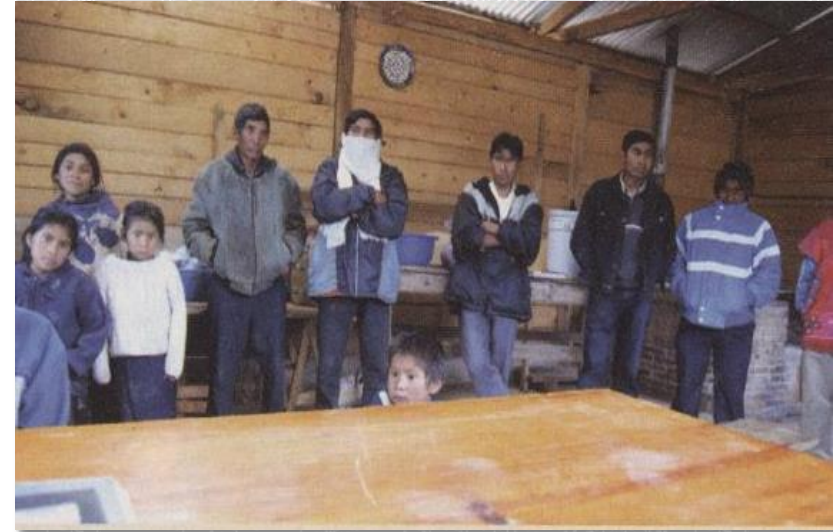
멕시코의 인종 구성은 백인과 원주민의 혼혈인 메스티소가 약 60%, 원주민이 30%, 맥인이 9%이다. 그러나 멕시코에서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누리는 중·북부 지역에는 대부분 메스티소와 백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원주민들은 경제적 혜택에서 소외된 남부 지역에 주로 많이 살고 있다. 멕시코에서 원주민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남부의 오악사카 주와 치아파스 주이다. 특히 치아파스 주는 멕시코의 남쪽에 위치한 경제력이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이다. 치아파스 주의 산크리스토발 데 라스 까사스에는 많은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 혜택에서 소외된 채 옥수수 농사 등을 지으며 자급자족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일부 원주민들은 원주민들의 권리를 되찾자는 해방 운동인 사파티스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문제)1. 멕시코의 사파티스따 운동에 대하여 조사해보고, 사파티스따 운동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적어보자.

(문제)2. 원주민과 정부 또는 일반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자.

문화

- 멕시코 원주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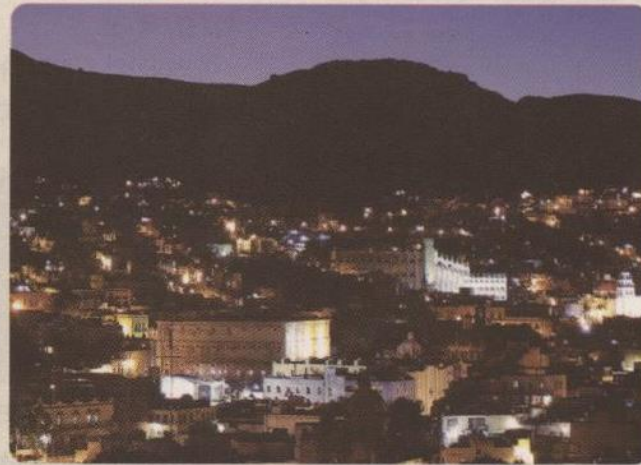
문화

·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여행

<세르반티노 축제>

(개최지: 멕시코 / 개최시기: 10월 / 특징: 문화 예술 축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멕시코의 작은 도시 과나화토에서 매년 10월 중 20일간 열린다.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를 기리기 위해 시작된 축제로,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 무용, 미술 등 각 분야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종합 예술 축제이다.



▲ 세르반티노 축제 (개최지 : 멕시코 / 개최 시기 : 10월 / 특징 : 문화 예술 축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멕시코의 작은 도시 과나화토에서 매년 10월 중 20일간 열린다.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를 기리기 위해 시작된 축제로,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 무용, 미술 등 각 분야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종합 예술 축제이다.



문화

· 아메리카의 다문화 체험

- 리오그란데 강,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이루며,
앵글로아메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의 문화적 경계이다.



[II-40] 리오그란데 강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이루며, 앵글로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적 경계이다.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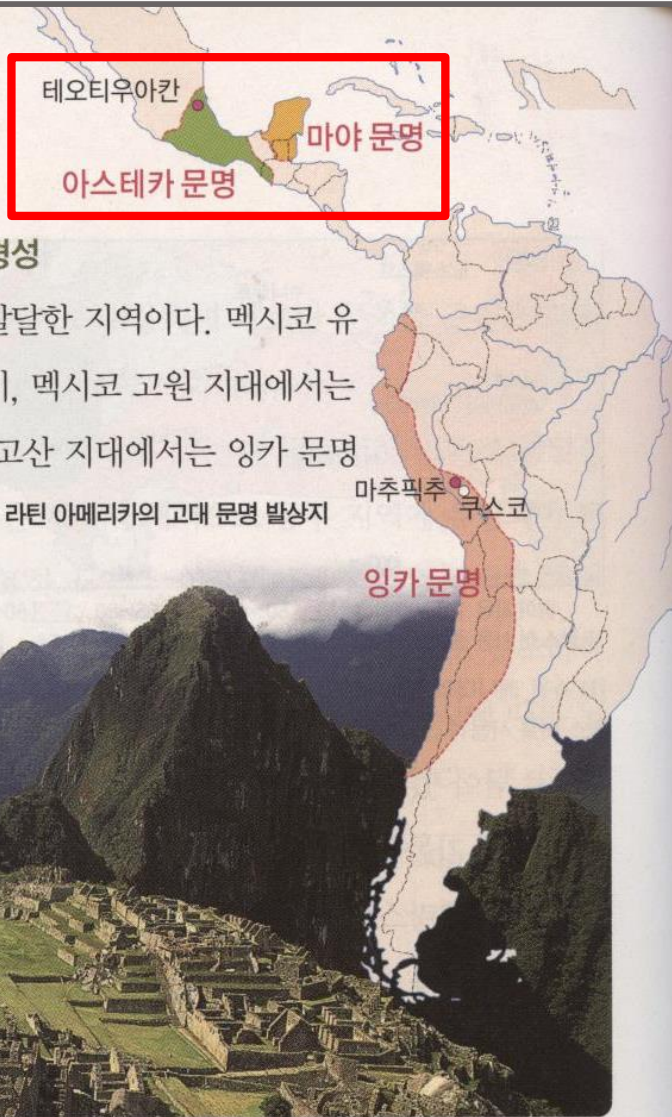
· 아메리카의 다문화 체험

<라틴아메리카의 고대 문명과 다문화 국가 형성>

라틴아메리카는 일찍부터 고대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열대 저지대에서는 마야 문명이, 멕시코 고원 지대에서는 아스텍아 문명이, 페루와 볼리비아 안데스 고산 지대에서는 잉카 문명이 각각 발달하였다.

- 테오티우아칸 유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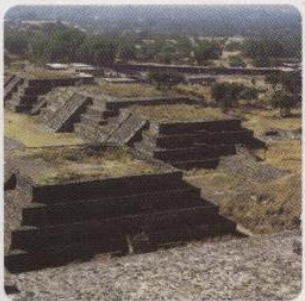
멕시코의 대표적인 관광 유적지인 테오티우아칸은 2,000년 전에 세워진 아메리카 최초의 고대 도시이다.



라틴 아메리카의 고대 문명과 다문화 국가 형성

라틴 아메리카는 일찍부터 고대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열대 저지대에서는 마야 문명이, 멕시코 고원 지대에서는 아스텍아 문명이, 페루와 볼리비아 안데스 고산 지대에서는 잉카 문명이 각각 발달하였다.

[II-46] 라틴 아메리카의 고대 문명 발상지



[II-47] 테오티우아칸 유적지
멕시코의 대표적인 관광 유적지인 테오티우아칸은 2,000년 전에 세워진 아메리카 최초의 고대 도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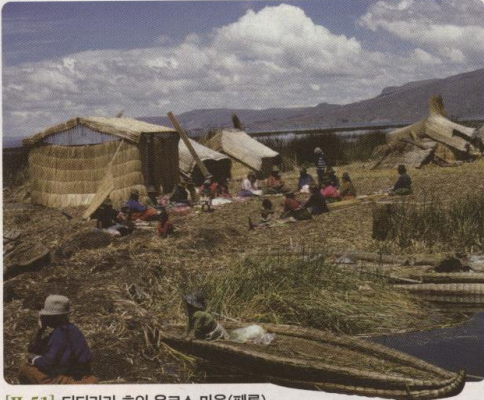
[II-48] 마추픽추 페루 안데스 산지에 남아 있는 잉카 문명 유적지이다.



오랜 식민 통치하에서도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는 국가들이 있다. 원주민 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은 멕시코 남동부와 과테말라 내륙, 볼리비아와 페루, 에콰도르 등지의 안데스 고산 지대로 원주민 고유의 토착 마을이 곳곳에 남아 있다.

멕시코는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가 주민 구성뿐만 아니라 문화에도 영향을 준 대표적인 국가이다. 아메리카 원주민과 백인의 혼혈인 메스티소가 주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메리카 원주민의 수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에스파냐어가 공용어이지만 원주민은 그들 고유의 언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백인의 인구 비율이 높는데, 이는 온대 기후를 선호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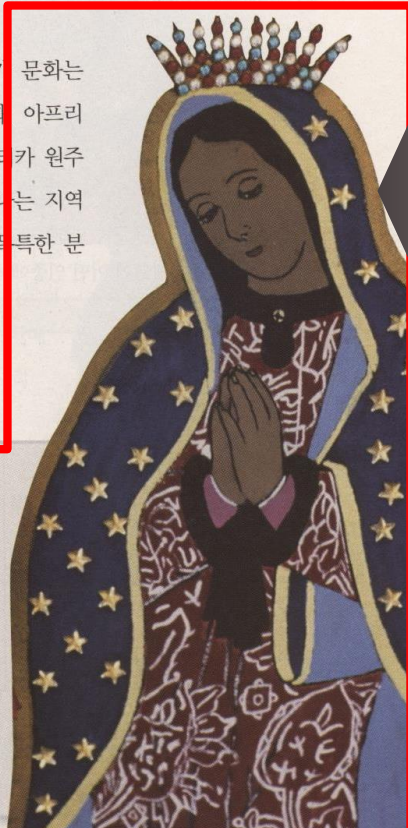
[II-51] 티티카카 호의 우르스 마을(페루)
티티카카 호는 페루와 볼리비아 국경 지대에 있는 호수로, 해발 고도 3,810m에 위치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며, 호반에서는 아메리카 원주민이 수상생활을 하며 티티카카 호에 의지해 살아간다.

백인이 주로 이 지역에 정착했기 때문이다. 카리브 해 연안 지역의 아이티와 바하마에는 열대 플랜테이션의 노동자로 이주한 흑인의 후손이 많아 흑인 인구 비율이 높다.

라틴 아메리카 문화는 유럽의 라틴 문화 아프리카의 흑인 문화,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가 주로 나타나는 지역이 달라 지리적으로 독특한 분포 특색을 보인다.



[II-50]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2005년에는 원주민 출신의 대통령이 최초로 선출되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모습으로 재탄생한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

멕시코시티 북쪽 끝 과달루페 성당에서는 갈색 눈에 갈색 피부를 가지는 원주민 성모상을 볼 수 있다. 가톨릭교가 아메리카에 전해지면서 성모 마리아가 원주민 전통문화에 뿌리를 둔 과달루페 성모로 변화된 것이다. 멕시코 인은 이 과달루페 성모를 종교와 관계없이 추앙한다. 과달루페 성모는 단순한 종교적 의미를 넘어, 멕시코 내의 다양한 인종, 문화 집단을 결합시켜주는 멕시코 민족주의를 상징한다.

- 항상 참배객으로 넘치는 과달루페 성당

문화

• 아메리카의 다문화 체험

<라틴아메리카의 고대 문명과 다문화 국가 형성>

(전략...) 멕시코는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가 주민 구성뿐만 아니라 문화에도 영향을 준 대표적인 국가이다. 아메리카 원주민과 백인의 혼혈인 메스티소가 주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메리카 원주민의 수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에스파냐어가 공용어이지만 원주민은 그들 고유의 언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다. (...후략)

▶ 세계 속으로 아메리카 원주민의 모습으로 재탄생한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

멕시코시티 북쪽 끝 과달루페 성당에서는 갈색 눈에 갈색 피부를 가지는 원주민 성모상을 볼 수 있다. 가톨릭교가 아메리카에 전해지면서 성모 마리아가 원주민 전통문화에 뿌리를 둔 과달루페 성모로 변화된 것이다. 멕시코 인은 이 과달루페 성모를 종교와 관계없이 추앙한다. 과달루페 성모는 단순한 종교적 의미를 넘어, 멕시코 내의 다양한 인종, 문화 집단을 결합시켜주는 멕시코 민족주의를 상징한다.



▶ 항상 참배객으로 넘치는 과달루페 성당

▶ 과달루페 성모



- 제 아버지는 에스파냐에서 대서양을 건너 온 백인이며, 어머니는 멕시코 원주민입니다. 제 주위에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 우리 선조는 오래 전 아프리카에서 건너왔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는 중간에 그만 두고 작은 구두 공장에서 구두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있지요. 다른 나라보다 피부색으로 받는 차별은 심하지 않아요.

탐구 활동 라틴 아메리카의 인종 분포

다음 그림은 멕시코 출신의 화가 프리다 칼로(Frida Kahlo)가 그린 '버스(1929)'라는 작품이다. 그림은 라틴 아메리카 사회를 절묘하게 풍자하고 있으며, 등장인물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아래 그림 속 인물의 소개 글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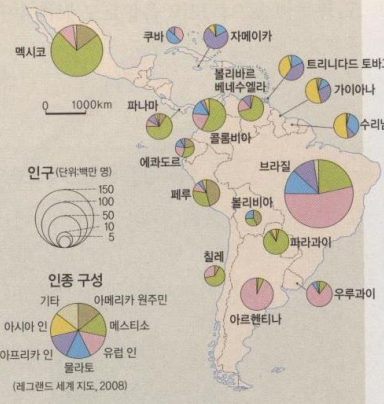


우리 선조는 오래전 아프리카에서 건너왔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는 중간에 그만두고 작은 구두 공장에서 구두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있지요. 다른 나라보다 피부색으로 받는 차별은 심하지 않아요.

제 아버지는 에스파냐에서 대서양을 건너 온 백인이며, 어머니는 멕시코 원주민입니다. 제 주위에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1 그림 속 등장인물이 어떤 인종에 해당하는지 오른쪽 지도에서 찾아 써 보자.

인물	인종	주요 분포 지역



- 2 위 그림의 빈 말풍선 안에 들어갈 인사말을 상상하여 써 보자.
- 3 위 지도와 같이 국가별 인종 구성비 차이를 가져온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문화

• 아메리카의 다문화 체험 <라틴아메리카의 인종 분포>

다음 그림은 멕시코 출신의 화가 프리다 칼로(Frida Kahlo)가 그린 '버스(1929)'라는 작품이다. 그림은 라틴아메리카 사회를 절묘하게 풍자하고 있으며, 등장인물을 통한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아래 그림 속 인물의 소개 글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1. 그림 속 등장인물이 어떤 인종에 해당하는지 오른쪽 지도에서 찾아 써 보자.
2. 위 그림의 빈 말풍선 안에 들어갈 인사말을 상상하여 써 보자.
3. 위 지도와 같이 국가별 인종 구성비 차이를 가져온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해보자.



도시

• 도시화의 진행과 도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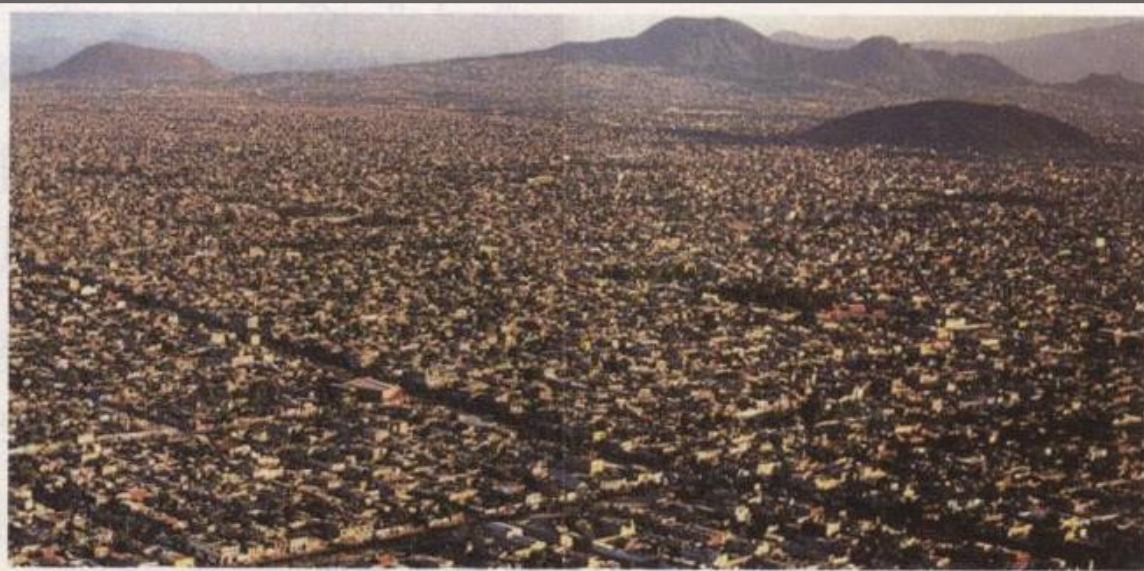
<하늘에서 본 도시의 경관>

-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라틴아메리카의 도시 구조>

- 멕시코시티의 소칼로 광장

- 멕시코시티의 신시가지 산타페 구역



▲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 멕시코시티의 소칼로 광장



▲ 멕시코시티의 신시가지 산타페 구역



[자료 ①] 중앙 및 남아메리카 경제의 맹주, 멕시코

멕시코가 중앙 및 남아메리카 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 및 남아메리카 최초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주요 20개국(G20)에 오르는 등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총생산(GDP)은 1조 170억 달러로 세계 13위를 차지했다.

멕시코는 북아메리카 자유 무역 협정(NAFTA) 체결을 기점으로 12개의 자유 무역 협정을 맺었다. 지난 1994년 NAFTA 체결 이후 일 년 만에 폐소화 가치가 폭락하는 위기를 맞았으나 수출의 급등과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18개월 만에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멕시코 경제는 금융 위기를 빠르게 벗어나고 있으며, 고용 시장도 빠르게 살아나고 있다.

북아메리카 시장에서 멕시코의 영향력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 멕시코 제품의 북아메리카 시장 점유율은 12.2%로 NAFTA 체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NAFTA 효과에 힘입어 소형차 수출이 급속히 늘어 지난 2008년보다 10.5%나 증가하였고, 자동차 업체들은 향후 4년 동안 생산 용량 확대에 더욱 많은 금액을 투자할 계획이다. 미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때문에 다국적 생활용품 제조 업체와 냉장고 생산 업체와 같은 미국 기업이 멕시코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뿐 아니라 항공, 전자 산업 육성에도 힘써 선진국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신문, 2010년 11월 8일-

[자료 ②] 멕시코, NAFTA 이후 식량 자급 '뚝'

1994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북아메리카 자유 무역 협정(NAFTA)을 맺은 이후 멕시코의 곡물 자급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농업 근로자 농민 독립 단체에 따르면 NAFTA가 발효되기 전인 1993년 멕시코의 옥수수 대외 의존율은 1%에 불과했다. 그러나 값싼 미국산 옥수수가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2008년에는 24.7%로 높아졌다. 또한, 밀의 대외 의존율도 같은 기간 32.7%에서 45%로 확대되었고, 쌀의 경우도 59.3%에서 73%로 늘었다. 특히 콩은 81%에서 98%로 증가하여 멕시코의 콩 생산 기반이 사실상 붕괴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신문, 2009년 4월 6일-

▶ 자유 무역 협정 체결 이후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멕시코 농민의 시위

1 [자료 ①]과 [자료 ②]를 토대로 자유 무역 협정 체결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하여 설명해 보자.



세계 경제

·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

<자유 무역 협정(FTA)의 명암>

- 중앙 및 남아메리카 경제의 맹주 멕시코
- 멕시코, NAFTA 이후 식량 자급 '뚝'



<중앙 및 남아메리카 경제의 맹주 멕시코>

멕시코가 중앙 및 남아메리카 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 및 남아메리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주요 20개국(G20)에 오르는 등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1조 170억 달러로 세계13위를 차지했다. 멕시코는 북아메리카 자유 무역협정(NAFTA) 체결을 기점으로 12개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다. 지난 1994년 NAFTA체결 이후 1년만에 폐소화 가치가 폭락하는 위기를 맞았으나 수출의 급등과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18개월 만에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멕시코 경제는 금융위기를 빠르게 벗어나고 있으며, 고용시장도 빠르게 살아나고 있다. 북아메리카 시장에서 멕시코의 영향력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 멕시코 제품의 북아메리카 시장 점유율은 12.2%로 NAFTA체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NAFTA효과에 힘입어 소형차 수출이 급속히 늘어 지난 2008년보다 10.5%나 증가하였고, 자동차 업체들은 향후 4년 동안 생산 용량 확대에 더욱 많은 금액을 투자할 계획이다. 미국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때문에 다국적 생활용품 제조업체와 냉장고 생산 업체와 같은 미국 기업이 멕시코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뿐 아니라 항공, 전자 산업 육성에도 힘써 선진국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신문, 2010년 11월 8일)

세계 경제

·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

<자유 무역 협정(FTA)의 명암>

- 중앙 및 남아메리카 경제의 맹주 멕시코



<멕시코, NAFTA이후 식량 자급 '뚝' >

1994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북아메리카 자유 무역협정(NAFTA)을 맺은 이후 멕시코의 곡물 자급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농업 근로자 농민 독립 단체에 따르면 NAFTA가 발효되기 전엔 1993년 멕시코의 옥수수 대외 의존율은 1%에 불과했다. 그러나 값싼 미국산 옥수수가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2008년에는 24.7%로 높아졌다. 또한, 밀의 대외 의존율도 같은 기간 32.7%에서 45%로 확대되었고, 쌀의 경우도 59.3%에서 73%로 늘었다. 특히 콩은 81%에서 98%로 증가하여 멕시코의 콩 생산 기반이 사실상 붕괴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신문, 2009년 4월 6일)



세계 경제

·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

<자유 무역 협정(FTA)의 명암>

- 멕시코, NAFTA 이후 식량 자급 '뚝'

- 자유무역 협정 체결 이후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멕시코 농민 시위



3. 요약 및 결론

■ 주제도

- ✓ 1,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주요 도시
- ✓ 세계 주요 공업 지역
- ✓ 커피 생산국
- ✓ 마야 및 아스텍 문명 발상지
- ✓ 은의 유통지
- ✓ 한국과의 FTA 협상 중인 국가

■ 문화

- ✓ 마야·아스텍 문명 및 유적지
- ✓ 혼합 문화
- ✓ 과달루페 성모상
- ✓ 인종
- ✓ 따빠스, 솜브레로, 세르반티노 축제



3. 요약 및 결론

- 라틴아메리카의 독립

- ✓ 멕시코의 독립: 돌로레스 신부, 민족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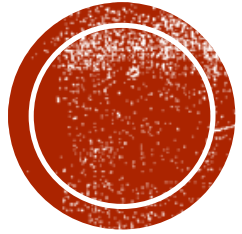
- 대서양의 교역

- ✓ 스페인 침략으로 인한 문명 파괴 및 원주민 수 감소
- ✓ 은의 유통

- 세계 경제

- ✓ NAFTA 회원국
- ✓ FTA 체결 이후 멕시코

**멕시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 넓은 지식 습득을 위해서는,
멕시코 관련 내용이 더욱더 다양한 분야에서 다뤄지기를 희망함**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E-mail: diani84@aks.ac.kr
- ✓ Tel: 82)31- 709- 6573

